

『구운몽』의 재미와 교훈

구본현 *

- 1. 놀이로서의 『구운몽』 읽기
- 2. 영웅 서사의 변용에 따른 재미
 - 1) 사회적 성공 욕망의 지속성
 - 2) 사회적 성공 방식의 세속성
- 3. 애정 서사의 활용에 따른 재미
 - 1) 속물근성과 인간적 면모
 - 2) 여성의 애정 욕망과 이상적인 남성상
 - 3) 남성의 성적 욕망과 이상적인 여성상
- 4. 『구운몽』의 교훈과 한계

1. 놀이로서의 『구운몽』 읽기

소설은 왜 읽는가? 독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재미’와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쾌락’과 ‘반성’이 안과 밖을 이루어야 좋은 독서가 가능해진다.¹⁾ 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옛 소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金萬重(1637~1692)의 『九雲夢』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① 패설 중에 『구운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포가 지은 것이다. 그 대강의 뜻은 공명과 부귀가 한바탕 봄날의 꿈으로 귀결된다는 것인데 모친의 근심스런 생각을 위로하려고 지은 것이다. 그 책이 아낙들 사이에 성행하였기에 어린 시절에 나는 그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 김현, 1976 「문학이란 무엇인가」『문학이란 무엇인가』(김현·김주연 편), 문학과지성사, 20-22면.

내용을 익히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이 석가의 寓言이었는데 그 가운데 楚나라 〈굴원이〉「離騷」를 통해 남긴 뜻도 많았다.²⁾

② 是書는 金公春澤氏의 著호 바이라. 모든 小說에 比肩된 其文이 奇호고 其事 | 最히 奇호 故로 至今傳誦한야 二百年間에 樵童牧豎라도 歌謡 아니리 업서 遂히 其觀이 됨이라 (중략) 하물며 『九雲夢』은 樂而不淫하고 且群仙圖景致가 具備한則 다만 風流勝事로만 認치 말고 一團和氣를 涵養한야 齊家之節에 幽閒貞靜의 旨趣를 寓寓시 이에 謳文으로써 新翻한야 每回에 보기 極히 便하고 소름의 마암을 無限히 愉樂케 한노니 噘라! 浮生이 夢과 如한니 快樂的 思想이 아니면 爲觀이 幾何오?³⁾

①은 『구운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한 입장이다. 佛家에서 말하는 ‘一切皆空’의 깨달음이나 屈原의 忠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慰釋’이라는 말에 재미를 인정한 면모가 보이지만 『구운몽』의 교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②는 『구운몽』의 재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다. 和氣를 함양케 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지만 『구운몽』의 핵심이 ‘樂而不淫’과 ‘愉樂’에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노래로 부를 정도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다.

『구운몽』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①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운몽』의 주제를 ‘인생무상’, ‘空觀 사상의 형상화’, ‘유·불·도 사상의 정교한 결합’ 등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상은 사물·현상·사건들의 공통점을 추상화하고 그 결과인 개념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반면에 문학은 개별적인 사물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만 한다. 여기에는 개념과 이론이 끼어들 자리가 많지 않다. 어려운 개념과 복잡한 논리를 지닌 사상을 한 편의 소설에 불과한 『구운몽』이 과연 얼마나 온전히 형상화할 수 있을까?

2) 李綽, 『三官記』(『大東稗林』 권8, 국학자료원 영인본), 338면 “稗說有『九雲夢』者, 卽西浦所作。大旨以功名富貴, 歸之於一場春夢, 要以慰釋大夫人憂思。其書盛行閨閣間, 余兒時慣聞其說。蓋以釋迦寓言, 而中多楚「騷」遺意云。”

3) 미상, 1913 「序」 『新翻九雲夢』(『구활자본고소설전집』 19,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영인본), 동문서림, 1면.

이런 의문에 따라 유·불·도 사상은 『구운몽』의 배경 사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⁴⁾ 이후 “성별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해방과 희망의 서사”,⁵⁾ “숙종의 각성을 염원하는 소설”⁶⁾ 등 『구운몽』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배경 사상이 아닌 인물과 사건에 주목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구운몽』의 교훈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그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고전이 지닌 교훈을 강조하는 경향은 최근 언급되는 인문학의 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의 위기는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문학자들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고전에서 교훈을 찾아내려는 것은 매우 당연한 태도이지만 고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심오한 이치를 담은 그 무엇으로 고전을 규정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방부제를 뒤집어쓴 유리관 안의 유물이나 위대한 행적으로 치장된 위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나 공감을 자아내지는 못한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은 세 가지뿐이다. 그것은 노동, 휴식, 놀이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을 하려면 지식과 기술을 배워 노동력을 갖춰야 한다. 소속집단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이념을 배우고 이에 동의해야 노동의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의 능력과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교육이고 이때 배우는 가치관과 이념 따위가 교훈이다. 노동의 선행 형태인 교육은 노동만큼이나 괴롭고 힘들다. 교육이나 노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려면 먹고 마시고 자야한다. 이것이 휴식이다.

그런데 인간은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 이외에 놀이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세상이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그 무엇임을 깨닫는다. 자신은 세상을 이루는 아주 작은 부품에 불과하며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을 뜻대로 바꿀 수 없음에 절망하게 된다. 쓸모가 없어지면 세상이 쉽사리 자

4) 김병국, 1976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보』 2권 4호, 일지사, 193-204면.

5) 이강옥, 2010 「『구운몽』의 재해석과 희망의 서사교육」 『국어교육연구』 46, 117-160면.

6) 설성경, 2012 『구운몽의 비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을 내다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에도 시달린다.

놀이는 노동에서 비롯하는 좌절감·상실감·공포감을 순간이나마 잊게 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거나 동의한 규칙 아래 진행되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심지어 스스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이것이 재미다.⁷⁾

그렇다면 소설을 읽는 행위는 노동, 휴식, 놀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소설 읽기는 분명 놀이에 포함된다. 소설 읽기가 연구와 교육의 영역, 즉 노동에 포함되면 재미를 도외시하고 교훈만을 찾아내려는 경향이 심화된다. 소설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은 소설 읽기를 노동으로 여기는 연구자·교육자·평론가들에게만 유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구운몽』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교훈적인 소설’이 아니라 ‘공감할 만한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서포연보』에 따르면 『구운몽』은 모친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消遣之資’로 창작되었다.⁸⁾ 김만중도 통속소설의 재미를 긍정한 바 있으며⁹⁾ 후대의 개작이나 번역도 『구운몽』의 재미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⁰⁾

이런 맥락에서 외설스럽고 음란한 소설이니 학생들에게 『구운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외설과 음란은 『구운몽』의 재미를 역설적으로 가리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를 보다 점잖게 표현하여 당대 남성

7) 놀이는 일상과 상관없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인 규칙과 질서를 지닌 특정한 시 공간에서 수행하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이다. 요한 하위징아(이종인 옮김), 2010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41-47면.

8) 『西浦年譜』丁卯 “又著書寄送，俾作消遣之資。其旨以爲一切富貴繁華，都是夢幻。亦所以廣其意，而慰其悲也。”

9) 金萬重, 『西浦漫筆』下 “『東坡志林』曰：‘塗巷中小兒薄劣，其家所厭苦，輒與錢，令聚坐聽說古話。至說三國事，聞劉玄德敗，顰蹙有出涕者；聞曹操敗，即喜唱快。’此其羅氏『演義』之權輿乎！今以陳壽史傳、溫公『通鑑』聚衆講說，人未必有出涕者。此通俗小說之所以作也。”

10) 서경희, 2003 「『구운몽』의 수용 양상 연구」 『이화여문논집』 21, 97-117면.

11) 려중동, 1993 「음란소설 『구운몽』 연구」 『새국어교육』 50, 197-203면; 려중동, 1997 「외설소설 『구운몽』 연구」 『배달말교육』 18, 75-135면; 김호준, 1998 「외설소설 『구운몽』이 교재로 부당함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준호, 1999 「음란소설 『구운몽』 연구」 『배달말교육』 20, 49-64면.

의 ‘남근 욕망(phallic desire)’을 형상화하였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¹²⁾ 상처 입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소설로 보는 것도 『구운몽』의 재미를 긍정하는 입장이다.¹³⁾

문제는 『구운몽』의 핵심이 재미이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다룬 데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¹⁴⁾ 『구운몽』이 어떤 특징의 페락과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은 아직도 연구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필자는 用事와 漢詩의 활용에서 비롯하는 『구운몽』의 재미를 분석한 바 있다.¹⁵⁾ 『구운몽』은 한문학의 관습적인 글쓰기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텍스트와 비교하여 읽는 재미, 한시에 함축된 내용을 찾아내는 재미, 한시의 내용이 이후의 사건과 결합되는 양상을 알아내는 재미 등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는 자잘한 재미에 불과하다. 『구운몽』의 진면목을 밝히려면 한문 텍스트가 아닌 소설 텍스트로서의 재미, 즉 인물과 사건에서 비롯하는 재미를 밝혀야 한다.

용사를 교묘하게 활용한다는 특징은 문장과 단락뿐만 아니라 『구운몽』의 서사 구조에도 나타난다. 양소유는 큰 공을 세워 부귀공명을 누리고 여덟 명의 여성과 결연한 후 다시 성진이 되어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이러한 내용은 분명 영웅 서사와 애정 서사의 구조를 활용한 결과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구운몽』의 인물 형상과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자

12) 강상순, 2001 「『구운몽』의 형식과 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 9-25면; 강상순, 2008 「『구운몽』에 형상화된 남녀관계의 소설사적 계보와 역사적 성격」 『우리어문연구』 32, 185-228면. 이에 따르면 “남아로 태어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며 대가문의 가부장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과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환상적인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구운몽』의 핵심이 된다.

13) 정병설, 2013 「주제 파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한국문화』 64, 315-337면.

14) 정희중, 2012 「시니파양의 미래: 『구운몽』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테제」 『비교문학』 57, 131-145면; 김현생, 2014 「김만중의 『구운몽』과 라캉의 욕망이론」 『영미어문학』 113, 91-108면.

15) 구본현, 2015 「『구운몽』의 인물과 서사에 나타나는 用事와 漢詩의 활용 양상」 『국문학연구』 32, 89-132면.

한다. 이를 통하여 『구운몽』의 재미를 실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구운몽』의 재미가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하는지 밝힐 수 있다면 자연스레 그 교훈적 가치 또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¹⁶⁾

2. 영웅 서사의 변용에 따른 재미

『구운몽』의 첫 번째 재미는 영웅 서사의 변용에서 만들어진다. 신화에서 유래한 영웅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 형태의 문화콘텐츠로 활발하게 재활용된다. 영웅이 거두는 성공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은 불만스런 현실을 잠시나마 완벽하게 잊게 해준다. 따라서 영웅 이야기보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란 지금도 쉽지 않다.

영웅의 일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생이다. 따라서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실현이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하다.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타인에게 표출할 수 없는 이런 욕망은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꿈이라는 형태를 빌어 단편적으로나마 그 실체를 드러낸다.¹⁷⁾ 『구운몽』은 불분명하고 비논리적인 꿈의 세계를 명확하고 체계적인 실재로 재현함으로써 갖가지 재미를 만들어낸다.

1) 사회적 성공 욕망의 지속성

그렇다면 인간이 욕망하는 가장 완벽한 인생이란 무엇이며 『구운몽』은 이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 구조에 따라 『구운몽』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6) 본고에서는 정규복 외, 『김만중 문학 연구』(1993, 국학자료원)에 영인된 강전섭 소장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 김만중(정병설 옮김), 『구운몽』(2013, 문학동네)에 실린 옮사본을 참조하기로 한다. 원문 인용은 이본의 이름과 면수만 밝힌다.

17) 마르틴 콜랭(박윤영 옮김), 1989 『인간과 욕망』, 예하, 100-104면.

18) 조동일은 『구운몽』을 ‘양소유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고 보고 영웅 서사로서의 특징과 구조를 밝힌 바 있다. 조동일, 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165-214면.

- ① 잘못을 저질러 천상계에서 추방된 후 지상계에서 비범한 존재로 환생함.
- ② 영웅이 속한 지상계에 외부 세력에 의한 시련이 닥침.
- ③ 타고난 능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함.
- ④ 지상계를 수호한 공로로 최고의 권력을 획득하고 여덟 여성과 결연함.
- ⑤ 지상계의 모든 존재에게 존경을 받고 천상계로 복귀함.

①에서 주목할 것은 양소유가 뛰어난 외모·재능·기상 등을 타고난다는 점이다. 영웅은 지상계의 존재이지만 그 혈통은 천상계에서 비롯한다. 환웅은 환인의 서자이기 때문에 천상계를 물려받을 수 없어서 지상계에 뜻을 둔다.¹⁹⁾ 해모수와 제우스도 천상계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지상계로 내려온다. 이들과 지상계의 존재가 결연함으로써 영웅인 단군, 주몽, 헤라클레스가 탄생한다.

영웅의 탄생은 천상계의 존재가 잘못을 저질러 지상계로 쫓겨난다는 적강 모티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진은 수행자로서 닦아야 하는 身·言·意 세 가지를 모두 더럽힌 죄로 천상계인 연화도량에서 지상계인 당나라로 추방된다.²⁰⁾ 천상계와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영웅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신선인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한 양소유 또한 성진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양소유는 타고난 재능으로 학문과 문장뿐만 아니라 무예와 병법까지 자득한다.²¹⁾

영웅의 선천적인 능력은 비범한 출생 장면을 통해 암시된다. 주몽, 박혁거세, 석탈해, 김수로는 모두 알에서 태어난다. 알크메네는 일주일이 넘는 산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헤라클레스를 낳는다. 순 살의 나이에 初產을 하게 된 류씨 부인 또한 오랜 산통 끝에 양소유를 낳는다.²²⁾

이러한 설정은 손쉽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반영한다.

19) 一然, 『三國遺事』 권1, 紀異一「古朝鮮」 “昔有桓因庶子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

20) 성진과 양소유의 세계를 천상계와 지상계로 구분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박일용, 1993 『조선 시대의 애정 소설: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 양상』, 집문당, 191-196면 참조.

21) 강전십 소장본, 15-16면 “處士見兒者骨格清秀，拊首曰：‘此兒應是天人謫降也。’(중략) 至十四歲，容貌似潘岳，氣像似青蓮；文章似燕、許，筆法似鍾、王。諸子百家，九流三教，天文地理，『六韜』『三略』，劖訣射法，無不精通。誠以前世修行之人，非世上俗子之所比也。”

22) 위의 책, 14면 “楊處士夫妻，五十始孕胎，人間希事，臨蓐已久，而無兒啼聲，可慮哉！”

사회적 성공의 필수조건인 능력을 갖추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노력에 뒤따르는 고통과 시간 소모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인간은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사회적 능력을 얻고 싶어 한다. 즉, 자신의 몸속에 선천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욕망이 지나치면 자신의 출생이 비범하다는 자기 최면에 빠지기도 한다. 자신의 이름, 태몽, 별자리, 혈액형, 사주팔자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운명적 표지로 인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는 외부 세력에 의해 영웅이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다. 영웅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양소유 또한 마찬가지다. 仇士良의 甘露之變, 河北 三鎮의 반란, 吐藩의 침략, 南海 太子와의 대결, 太后와의 갈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난과 시련은 영웅의 타고난 선량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기적인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 영웅이 되려면 노력의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양소유의 성공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선의의 결과이다. 양소유는 집안을 부탁한 아버지와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를 위해 과거를 치른다.²³⁾ 정경폐와 혼인하는 것도 양가의 규수를 며느리로 맞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이다.²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은 소속 공동체의 위기를 회피하기 마련이다. 양소유는 포의의 처지일 때 정혼자인 진채봉도 내버린 채 난리를 피해 도망친다. 그런데 장원급제 후 국록을 받는 처지가 되자 돌연 영웅으로 탈바꿈한다. 하복 삼진이 반란을 일으키자 양소유는 開諭의 글을 써서 趙王과 魏王을 회유한다. 그 공로로 황제가 상을 내리지만 양소유는 이를 마다하고 곧바로 사행을 자원하여 燕王의 반란까지 무마한다.²⁵⁾

23) 위의 책, 16면 “父親歸天之時，以門戶付兒子。今也家貧，母親勤勞，兒子若爲守家之狗，不求功名，則非父親期待之意也。今聞京師設科取士，兒子暫離膝下，欲一西遊。”

24) 위의 책, 22-23면 “上年往京師，經危境。汝年少，不急功名，而今不挽汝行者，余又有意。汝年十六，無定婚處。壽州，僻陋小邑，豈有賢淑處女，爲汝配匹？”

25) 위의 책, 54면 “以羅三千疋、馬五十疋賞賜，將欲尊其官。楊翰林辭讓曰：‘燕國猶未服從，臣以何心受陞擢之命乎？願得一枝兵，就行陣，以死報國。’”

태후와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 양소유는 이소화와 혼인하면 그만이다.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정경폐와 파혼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소유는 정경폐와 그 집안을 지키고자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고 태후에게 극언의 상소를 올려 옥에 갇히고 만다.

정사도 가문은 양소유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베푼 공동체이다. 이에 양소유는 정사도 가문을 자신의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양소유가 황실의 부마가 되면 정사도 가문은 망한다. 외동딸인 정경폐가 다른 혼처를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대가 끊기기 때문이다.²⁶⁾

이때 토번이 침략한다. 국가가 해준 것이라곤 꽤 짐작도 인한 가혹한 처벌밖에 없는데도 양소유는 토번 정벌에 앞장선다. 그 결과 양소유는 대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태후의 마음도 되돌리게 된다. 양소유의 사회적 성공은 자신과 소속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로 여기는 선량한 마음과 희생정신 덕분에 가능해진다. 이러한 설정은 뛰어난 능력이 영웅에게만 주어진다는 불공평함과 영웅의 성공이 지나치게 크다는 불합리함을 상쇄해준다.

영웅의 선량한 마음은 소속 공동체 밖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영웅은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이념 및 가치관을 퍼손하는 어떠한 외부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양소유는 권력을 등에 업고 혼인을 강제하는 남해 태자를 물리치고 동정 용왕의 세계를 구해준다. 그 결과 동정 용왕의 환대와 백릉파와의 결연이라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²⁷⁾

③은 영웅이 외부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소속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영웅의 선천적인 능력이다. 양소유는 타고난 글재주와 말솜씨로 하복 삼진의 반란을 진압하고 뛰어난

26) 위의 책, 67면 “小姐已有定計。侍吾老爺及夫人膝下，百歲之後，截髮而托空門，發願佛像：世世生生，不爲女子之身。”

27) 이 장면은 파혼을 강요하는 태후를 애둘러 비판하는 성격을 지닌다. 태후는 이소화의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인정에 호소하여 파혼을 부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거부한 양소유를 옥에 가두는 것은 분명 국법과 예의 모두에 어긋난다. 황제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소속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양소유의 행동은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갈등의 대상을 태후로 설정한 것이다.

병법으로 남해 태자와 토번의 찬보를 사로잡는다. 儒家의 명분론에 입각한 意氣를 보여 혼사 장애도 극복한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려면 초인적인 능력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지적할 것은 우연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이다. 양소유는 예기치 못한 난리로 진채봉과 이별하지만 그 덕에 남전산 도인을 만나게 된다. 남전산 도인에게 거문고와 통소를 배움으로써 정경쾌와 이소화를 얻게 된다. 양소유의 공훈을 가능케 하는 하북 삼진의 반란과 토번의 침략도 시간적인 우연의 결과이다. 초월적 존재에 의해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인과관계가 영웅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영웅의 위기 극복에는 신성한 능력을 지닌 물건이 등장한다. 남전산 도인이 물려준 거문고와 통소가 이에 해당한다.²⁸⁾ 거문고와 통소는 두 본부인과의 결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소유는 남전산 도인에게 받은 彭祖의 方書를 익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능력 또한 지니게 된다.²⁹⁾

한편, 영웅의 성공을 돋는 주변 인물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구운몽』에는 조력자의 면모가 매우 다채롭게 형상화된다. 남전산 도인, 두련사, 심요연, 백릉파가 모두 전화위복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애정 결연에서는 양소유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조력자로 활약한다.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결연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³⁰⁾

④는 소속 공동체를 수호한 공로로 영웅이 부귀와 공명을 획득하는 장면이다. 인간은 여행이나 다른 이의 도움으로 손쉽게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열매를 독차지하고 싶어 한다. 영웅 또한 우연에 기대거나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성공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혜택을 독차지한다.

영웅의 성공은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점에서 ‘최대 권력의 획득’이라는 형태를 띤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28) 강전섭 소장본, 34면 “此龍門山下折於霹靂之百年梧桐也。本性盡而堅如金石，雖千今不可易也。”

29) 위의 책, 21면 “出授彭祖方書一卷曰：‘習此，則雖未延年，亦無病却老矣。’”

30)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보조도구와 조력자의 양상에 대해서는 정정현, 1989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보조도구가 갖는 의미 고찰」 『사립어문연구』 6, 119-134면 참조.

가리킨다. 권력의 유무에 따라 인간은 주인 아니면 노예가 된다. 평등한 인간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출근하면 만년 과장으로서 사장님의 노예가 되지만 퇴근하면 가장으로서 식구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노릇을 하는 상황이 많을수록 인간은 행복해진다. 힘든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예보다 우월하다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권력 획득에 필요한 능력은 다양하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외모와 재능으로, 학자와 전문가는 지식과 경험으로, 정치가와 종교인은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내세워 주인노릇을 한다. 오늘날에는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재화와 금전을 내세워 가장 보편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양소유는 선천적인 외모·지식·재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성공을 거둔다. 마지막에는 막대한 금전적 권리과³²⁾ 황실조차 존경하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다.³³⁾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의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회적 성공에 해당한다.³⁴⁾

⑤는 양소유의 삶이 성진의 꿈에 불과하였다는 결말 부분이다. 양소유의 존재와 행적이 몽땅 부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운몽』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를 두고 논란이 생긴다. 성진과 양소유는 같은 사람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주인공이라 할 수 없기에 사실 이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31) 주인, 노예, 노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제1권과 헤겔의 『정신 현상학』 제4장 참조.

32) 강전섭 소장본, 99면 “天子美其志, 乃下詔以楊少遊封大丞相、魏國公, 食邑三萬戶, 賞賜黃金一萬斤、白金十萬斤、蜀帛十萬疋、駿馬十千疋。此外各色珍寶, 不可勝記也。” 원문에는 ‘丞相’이 ‘承相’으로 된 곳도 있는데 ‘丞’과 ‘承’은 同音이어서 서로 통용한다.

33) 이는 양소유를 가리켜 국가가 의지하고 자신도 우러른다는 황제의 언급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양소유의 致仕를 마지못해 허락한 황제는 양소유를 불잡아두기 위해 황실 재산인 쥐미궁을 하사하기까지 한다. 위의 책, 131-132면 “卿之勳業覆世, 德澤滿於百姓。國家之所依, 寡人之所仰。(중략) 卿之志如此, 蕃豈不成高節? 但卿就封建之邦, 則距京師千里之外, 國家大事, 難於議論。皇太后棄世之後, 則與蘭陽尤不忍相離。城南四十里地, 有一離宮, 名翠微宮。昔玄宗皇帝, 借岐王而避暑處也。此地最宜於暮年優遊, 今與卿而使居處矣。”

34) 사대부가 권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황제마저 양소유를 우러른다는 설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길수, 2010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77-85면.

해결의 실마리는 성진의 수행 또한 욕망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있다. 성진은 팔선녀 때문에 일어난 망념을 뉘우치며 이런 잘못이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 자책한다.³⁵⁾ 자신을 추방하는 육관대사의 처분에 대해 아난존자의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³⁶⁾ 환생하는 도중에는 자신의 사리를 거두어줄 제자 하나 키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³⁷⁾

이런 생각들은 분명 세속적인 욕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소유의 성공은 곧 성진의 욕망을 구현한 것이 된다. 성진의 득도는 양소유의 욕망을 부정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소유의 마지막 욕망을 실현한 것이다. 『구운몽』의 환몽 구조는 욕망에서 시작하여 욕망으로 끝나는 지속성을 보이는 것이다.³⁸⁾ 그렇다면 양소유의 마지막 욕망은 무엇인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밤중에 잠들기 전에 매일 포단 위에서 참선을 했소. 이는 반드시 불가와 인연이 있기 때문일 것이오. 나는 장차 장량이 적송자를 따르고자 한 것³⁹⁾처럼 집을 버리고 스승을 찾으려 하오. 남해를 건너 관음보살님을 찾아뵙고 오대산에 올라 문수보살님께 예를 갖추어 불생불멸의 도를 깨우치고 속세의 고락을 초월하고자 하오.⁴⁰⁾

백성들뿐만 아니라 황제한테까지 존경을 받고 여덟 명의 여성과 결연하여 자

35) 강전십 소장본, 11면 “釋敎工夫，正其心志，斯爲上行也。我出家十年，曾無半點苟且之心矣。邪心忽發，今乃至此，豈不有妨於我之前程乎？”

36) 위의 책, 12-13면 “昔阿難尊者，往娼女之家，同席交躬。釋迦大佛不之罪，但說法教之。弟子雖罪，比阿難尊者，似不重。何以令往酆都乎？”

37) 위의 책, 14-15면 “吾旣還度人也。此來者只精神而已，肉身則當燒火於蓮花峰矣。吾年少，未領從弟，何人收我舍利乎？”

38)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이주영, 2002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의 문제」 『고소설연구』 13, 33-55면 참조.

39) 漢 司馬遷, 『史記』 권55, 留侯世家 “留侯乃稱曰：‘家世相韓，及韓滅，不愛萬金之資，爲韓報仇強秦，天下振動。今以三寸舌爲帝者師，封萬戶，位列侯，此布衣之極，於良足矣。願棄人間事，欲從赤松子遊耳。’乃學辟穀，道引輕身。”

40) 강전십 소장본, 134면 “吾自致仕之後，夜間就睡，每於蒲團之上參禪。此必與佛家有緣。吾將張子房願從赤松子，棄家求師，渡南海，尋觀音；登五臺，禮文殊；得不生不滅之道，超出塵世之苦樂。”

녀들까지 훌륭하게 키워낸 양소유에게 더 이상의 욕망은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소유의 앞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욕망이자 가장 실현 가능성의 없는 마지막 욕망이 남아있다. 현재의 이곳보다 더 나은 시공간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 현세의 행복이 내세에서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양소유는 평생의 사업으로 유가의 도를 선택한다. 그 결과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만 육신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팽조의 방서 덕분에 노쇠를 면한 양소유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성공의 한계를 깨달은 양소유는 ‘불생불멸’과 ‘속세 고락의 초월’이라는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힌다. 양소유의 마지막 욕망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운몽』은 이렇게 끝난다.

〈육관대사가 자신의 자리를 성진에게 물려주고 인도로 돌아간〉 이후 성진은 연화도량의 대중을 이끌면서 크게 교화를 베풀었다. 신선과 용신, 사람과 귀신들이 성진을 육관대사처럼 존중하였다. 여덟 비구니도 모두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보살의 큰 도리를 깊이 체득하였다. 마침내 모두 극락세계로 돌아갔다. 아, 기이하도다!⁴¹⁾

양소유의 마지막 욕망은 곧바로 이루어진다. 멀리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을 찾아갈 필요도 없이 조력자인 육관대사가 느닷없이 나타나 양소유의 소원을 성취해 준다. 육관대사의 자리를 물려받은 성진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보다 우월한 존재인 신선·용신·귀신에게도 존경을 받다가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돌아간다.

양소유의 삶이 가짜라는 설정은 ‘一切皆空’이라는 佛家의 사유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소유의 마지막 욕망이 구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불가의 사유는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양소유가 불가의 도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도가의 신선술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단지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⁴²⁾ 적송자를 따른 장량을 본받겠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양소유는 도가의 신선술을

41) 위의 책, 137면 “此後, 性眞率蓮花道場大衆, 大宣教化。仙與龍神, 人與鬼物, 尊重性眞如六觀大師。八尼皆師事性眞, 深得菩薩大道。畢竟皆歸於極樂世界。嗚呼, 異哉!”

42) 위의 책, 133-134면 “天下儒道、仙道、佛道最尊，此謂三教也。儒道，生前事業，身後流名而已。神仙，自古希求而得之者，秦始皇、漢武帝、玄宗皇帝，可以見也。”

부정하지 않는다.

『구운동』은 천상계에서 추방된 영웅이 지상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천상계의 의지와 은혜를 실현하고 원래의 세계로 귀환한다는 영웅 서사의 구조를 적절히 활용한다. 이를 통해 현세에서는 물질적 성공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자유와 평안을 얻고자하는 욕망의 지속성을 충실히 재현한다.⁴³⁾ 여덟 여성 또한 살아서 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극락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성취함으로써 가장 완벽한 인생을 재현한다.⁴⁴⁾ 따라서 『구운몽』의 환몽 구조는 영웅 서사라는 몸뚱이에 불가의 사상이라는 옷가지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⁴⁵⁾

2) 사회적 성공 방식의 세속성

‘생전의 권력과 사후의 신격화’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생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는 말에는 ‘가장 그럴듯한 인생’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인간은 고난이 없는 삶을 욕망하지만 이와 달리 영웅은 극도의 시련을 겪는다. 양소유는 난리 때문에 진채봉과 이별하며 귀신으로 변장한 가춘운을 만나지 못해 상심하기도 한다. 태후의 진노로 옥에 갇히기도 하며 토번과 싸울 때에는 식수를 구하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쉽사리 외적을 물리치고 순탄하게 애정을 성취하는 서사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것이 더 완벽한 인생을 그린 것이 되지 않을까?

43) 생전에는 육신의 괴락을 누리고 사후에는 영혼의 평안을 얻고 싶다는 욕망은 모든 종교와 신앙의 초기 형태에 나타나는 祾福에 해당한다. 이런 기복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구운몽』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세속소설이다. 사실 소설에는 신성성이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다. 어떤 이야기가 신성성을 획득하려면 세계의 창조와 변화를 설명하는 유일한 진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의를 통해 재현되고 제도와 문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교육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야기의 신성성은 신화를 진실로 믿었던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44) 강전섭 소장본, 130면 “自今日，誓爲兄弟，與共死生苦樂。或有懷異心者，則不容於天地。伏望：大師降福除殃，百年之後，共歸於極樂世界也。”

45)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영웅소설의 적강 화소가 佛典의 서사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은 검토한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김진영, 2010 「고전소설에 나타난 講降話素의 기원 탐색」 『어문연구』 64, 89-117면.

그러나 이런 설정은 ‘개연성’이라는 문학성의 중요 요소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만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현실적 고통을 겪는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불행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의 시련은 딱하기 그지없지만 고아가 겪는 고난에는 비활 바가 못된다.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빼면 영웅의 이야기는 개연성, 즉 문학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보조도구와 조력자의 등장 또한 마찬가지다. 영웅 혼자서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둔다는 설정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인간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좋은 부모, 선생, 동료, 후배를 만나야 하며 자신의 목표가 사회적 수요와 부합해야만 한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실존인물의 이야기에도 항상 시간적 우연이나 조력자가 등장한다.⁴⁶⁾ 따라서 영웅 이야기에는 시련, 우연, 조력자 등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구운몽』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 공동체 어디에나 존재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의 두뇌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그럴듯한 욕망은 때번 유사한 구조로 재생산된다. 그것이 바로 영웅 이야기이다.⁴⁷⁾

그러나 『구운몽』은 다른 영웅소설과 구별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잠재력을 계발하거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소대성전』, 『조옹전』, 『유충렬전』 등은 멸문지화의 위기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영웅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잠재력을 계발하고 적이나 원수와 치열하게 대결하여 성공을 이

46) 중앙컴퓨터를 주로 만들던 IBM은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면서 선점업체인 애플과 차별되는 오픈 플랫폼 PC를 개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개발해줄 협력업체를 물색한다. 당시 가장 우수한 운영체제는 게리 킬달이 만든 CP/M이었다. 그런데 자가용비행기 여행을 즐긴 킬달이 IBM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고 만다(우연). 이후 IBM의 한 고위간부가 자선단체에서 알게 된 메리 게이츠라는 여인의 아들이 연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기억을 떠올린다(조력자). 결국 IBM은 MITS와의 저작권 소송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시련)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맺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지금의 빌 게이츠를 있게 한 MS-DOS다. 이에 대해서는 프레드릭 맥스웰(안진환 옮김), 2003 『살아있는 신화 스티브 빌머』, 한국경제신문 참조.

47) 가공의 내용을 포함한 영웅 이야기가 널리 전승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 경험과 부합하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일, 앞의 논문, 179면.

루는 서사 구조를 보인다.

이와 비교하면 양소유의 노력이나 시련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남전산의 도인에게 거문고와 통소를 배운 것이 유일하게 나타나는 노력인데 이마저도 도인이 놀랄 정도로 쉽사리 익힌다.⁴⁸⁾ 양소유가 겪는 고난 또한 태후의 명을 거슬러 옥에 갇힌 것과 토번 정벌 때 식수를 구하지 못한 것뿐인데 이 또한 시간적 우연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극복한다.

이러한 설정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다. 사회적 성공을 거두려면 오랜 수련을 거쳐야 한다. 위기 극복에 수반되는 고통 또한 인내해야 한다. 원대한 성공을 꿈꿀수록 노력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피땀 어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평범한 인간은 성공한 이들의 노력을 존경하기만 할 뿐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노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다른 수고 없이 타고난 능력만으로 성공하기를 욕망한다. 그렇다고 일체의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⁴⁹⁾ 졸부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력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공은 ‘선천적인 능력’에 ‘적당한 노력과 시련’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명예로운 성공’이다.

『구운몽』에는 시련이 클수록 성공이 위대해지고 행복이 더 값지게 된다는 영웅 이야기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노력을 하긴 하되 지나치게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한다. 치열한 노력으로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는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치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구운몽』은 고결한 영웅의 모습 속에

48) 강전섭 소장본, 21면 “道人呼童子，取琴授生而使彈。（중략）道人笑曰：‘手法活動，可教也。’（중략）生素好音律，聰明過人，一聞而一一傳之，道人大悅。又出碧玉洞簫，吹一曲而教生曰：‘遇知音，古人所難。今以琴簫與君，後日必有用處。’”

49) 「잭과 콩 나무」나 「새끼 서 밭」처럼 노력 없이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개인적인 것에 그친다.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사람에 불과하다.

속물스런 인간의 욕망을 은근슬쩍 집어넣음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높이는 전략을 채택한다.

따라서 『구운몽』을 당대 남성 사대부의 현실적 욕망을 형상화한 소설로 보는 것은 일부만 맞는 말이다. 양소유와 성진의 삶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도 공감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구운몽』의 재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⁵⁰⁾

3. 애정 서사의 활용에 따른 재미

영웅 이야기는 서사 구조의 큰 변화 없이 디테일만 바뀌어 재생산되므로 진부해지기 쉽다는 단점을 지닌다. 영웅의 초인적인 능력과 엄청난 성공은 평범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으므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도 한계를 지닌다. 대부분의 영웅이 남성이어서 독자층이 남성으로 제한되기 쉽다는 것도 문제다.

『구운몽』은 능력 계발과 시련 극복의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는 성공을 거두는 장면에서 극적인 패감이 반감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우연과 조력자의 면모가 다양하게 형상화되는 바람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서술되기도 한다.

김만중 또한 영웅 서사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았을 것이다. 김만중은 글쓰기의 대가답게 ‘영웅의 일생’이라는 뼈대에다 ‘애정의 결연’이라는 살을 더하여 ‘공감의 부재’와 ‘여성 독자의 외면’이라는 두 가지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50) 양소유가 이루는 성진의 욕망과 성진이 이루는 양소유의 욕망이 모두 미혹의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두 가지 미혹에서 모두 벗어난 진정한 깨달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도록 이끄는 것’이 『구운몽』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유광수, 2007 「『구운몽』, 두 욕망의 순환과 진정한 깨달음의 서사: 양소유가 성진 되기」 『열상고전연구』 26, 287-317면. 그러나 이는 『구운몽』의 교훈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비롯한 결과로 보인다. 양소유의 삶을 구태여 복잡하면서도 자세하게 형상화한 까닭이 해명되지 않거니와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한 대부분의 독자들이 성공 이후의 무상감조차 혛되다는 생각에 얼마나 공감할지도 의문이다.

남자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책을 읽고 한창 때에는 요와 순 같은 임금을 만나야 한다. 밖에서는 삼군의 원수가 되고 안에서는 관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자줏빛 인끈을 묶어야 한다. 임금님께 공손하게 예의를 다하고 백성들에게 은택과 이로움을 내려야 한다. 눈으로는 곱고 아름다운 빛깔을 보고 귀로는 흥상적이고 오묘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당대에는 영광이 지극하고 후대에는 공을 세웠다는 이름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야 말로 진정 대장부의 일이다.⁵¹⁾

팔선녀를 만난 성진이 미혹에 빠진 장면이다. 유가에서 말하는 입신양명의 논리 속에 애정 욕구가 끼어들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운몽』의 서사 구조가 ‘영웅의 일생’과 ‘애정의 결연’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 한다. 『구운몽』은 분명 영웅소설의 면모를 보이지만 애정 결연이 중심인 재자기인 소설과도 닮은 점이 많다.⁵²⁾ 여기에서 『구운몽』의 두 번째 재미가 비롯한다.

1) 속물근성과 인간적 면모

애정 서사에는 영웅 서사처럼 공식에 가까운 서사 구조가 없다. 따라서 갖가지 재미난 인물과 사건을 만들어내기에 용이하다. 또한 은밀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에도 적합하다. 『구운몽』은 영웅이 지닌 반신반인의 특징을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그려냄으로써 영웅 서사와 애정 서사의 장점을 교묘하게 결합한다.

양소유가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장면에서는 영웅으로서의 신성한 면모가 강조된다. 연왕, 토번, 남해 태자를 물리칠 때의 모습이나 태후에게 상소를 올리는 장면에는 양소유의 영웅적인 의기가 잘 드러난다.⁵³⁾

51) 강전섭 소장본, 11면 “男兒生世，幼而讀孔、孟之書，壯而逢堯、舜之君；出則作三軍之帥，入則爲百揆之長；着錦袍於身，結紫綬於腰；揖讓人主，澤利百姓；目見嬌艷之色，耳聽幻妙之音；榮耀極於當時，功名垂於後世。此固大丈夫之事也。”

52) 『구운몽』의 재자기인소설로서의 특징에 대해서는 강미선, 2004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 연구: 중국 재자기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 2005 『조선후기 재자기인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53) 강전섭 소장본, 55면 “翰林至燕，遠地之人，未嘗見如此風采。過去之處，挾車塞道，威風大振矣。與燕王相見，盛言大唐威德，開諭利害，言辭滔滔，如翻波濤。”: 같은 책, 75-76면 “尙

그런데 애정 결연에서는 신성한 면모가 소거되고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영웅 또한 독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모가 〈양소유의 시를〉 받아 품에 넣고는 객점의 문을 나서려고 하자 양소유가 다시 불러 말하였다.

“소저는 진 땅 사람이고 나는 초 땅 사람입니다. 한번 헤어지고 나면 산과 강으로 막히고 끊어져서 소식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정혼한 일)에 좋은 중매쟁이가 없어서 제 심정을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 달빛을 이용하여 소저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저의 시에도 그런 뜻이 있으니 할멈이 소저께 아뢰어주시오.”

유모가 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아뢰었다.

“낭군께서 회답하신 시를 보시고 우리 소저께서 매우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낭군께서 말씀하신 달빛 아래의 만남을 전하였더니 소저께서는 ‘남녀가 혼인 전에 만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만 누군가에게 의탁하려 하면서 어찌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밤에 만나면 남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아시면 또한 일을 그르칠지도 모릅니다. 내일 중당에서 잠시 뵙고 정혼하시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소유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소저의 밝은 식견과 올바른 뜻은 내가 미칠 바가 아니로구나!”

거듭 신신당부하고는 유모를 보내었다.⁵⁴⁾

양소유가 진채봉의 청혼을 승낙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다. 진채봉의 마음을 확인한 양소유는 달빛이 밝으니 등불을 켜지 않고도, 즉 사람들 모르게 만날

書大怒曰：‘狂童何如是無禮？’拂袖而起，上馬，跳出水外。（중략）尙書一舉白玉鞭，大唐陣中萬弩俱發，敗鱗殘甲，滿地如雹。太子身傷數處，不能變化，竟爲唐兵所擒。」： 같은 책, 98면 “諸將縛贊普，進唐營而降。楊元帥整各軍容，入吐藩之都，慰安百姓。登崑崙山，立石記大唐功德，吹凱歌，回三軍，向京師。” 또한 을사본(335-336면)에 실린 격렬한 상소문에도 양소유의 의기가 잘 드러난다.

54) 위의 책, 20면 “乳娘受而藏於身，出店門而去。楊生還召曰：‘小姐秦人，小生在楚。一歸之後，山川隔絕，消息難通。况今日之事，既無良媒，小生之心，終無所憑。乘今夜月色，可得望見小姐顏色耶？小姐詩中，亦有此意，老娘稟于小姐。’乳娘去，卽還來回報曰：‘我小姐見郎君回答詩，十分感激。而我傳郎君月下之會，小姐曰：‘男女婚前相見，知其非禮，而方欲依托於人，何不順其意也？但相見於夜，似有人疑。父親知之，亦似爲誤。明日中堂，暫見成約。’楊生嗟嘆曰：‘小姐之明見正志，非我所及！’再三呻囁乳娘而送之。”

수 있지 않겠느냐고 수작을 건다. 이 장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남성의 천박한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진채봉과 만나기 위해 양소유가 갖다 붙이는 “달빛이 좋다”는 이유는 “비가 오니 조금만 쉬었다 가자”는 남성들의 속물스런 평계와 다를 바 없다. “소저의 시에도 그런 뜻이 있다”는 착각은 여성의 고운 차림새와 다정한 애교를 동침의 허락으로 오인하는 남성들의 경박함을 연상시킨다.

진채봉의 논리 정연한 대답으로 양소유의 욕망은 그 자리에서 좌절되고 만다. 경박한 남성에게 망신을 주는 이 장면은 여성 독자들에게 통쾌한 재미를 선사한다.⁵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소유의 속물스런 성적 욕망은 금세 되살아난다. 뒤이은 장면에서는 진채봉을 만나고픈 마음에 뜯눈으로 밤을 새운 뒤 동이 트자마자 채비를 서두르는 양소유의 속물근성이 다시 등장한다.⁵⁶⁾

- ① 낙양의 연회에 뒤늦게 참석한 양소유는 시를 짓지 않는 것이 예의이지만 계설월을 차지하기 위해 세 수의 시를 짓고 계설월이 자신과의 동침을 선택하자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 ② 양소유는 정경쾌가 절세미인이라는 두련사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봐야겠다고 폐를 쓴다. 두련사가 방법이 없다고 하자 모친의 부탁을 들먹이며 계속 올라댄다.⁵⁷⁾ 이후 정경쾌를 보기 위해 여장이라는 수모를 기꺼이 감수한다.
- ③ 여장을 한 양소유는 정경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거리가 멀어 거문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꼼수를 부린다. 그런데 쪽씨 부인 바로 옆자리로 옮기는 바람에 정경쾌의 얼굴이 가려지게 되어 오히려 낭패를 당한다.⁵⁸⁾

55) 이 장면은 唐 元稹의 「鶯鶯傳」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앵앵을 보고 첫눈에 반한 張生은 결연을 원하는 시를 지어 보낸다. 이에 앵앵은 “待月西廂下, 過風戶半開, 拂牆花影動, 疑是玉人來.”라고 회답한다. 시 내용에 따라 장생은 보름날 밤에 서상으로 앵앵을 찾아간다. 그런데 앵앵은 직접 만나서 거절의 뜻을 전하려고 일부러 그런 시를 보냈다며 장생을 타이르고 사라진다.

56) 강전섭 소장본, 20면 “是日, 宿於客店, 而三月之宵, 恨其苦永矣.”; 을사본, 284면: “是夜, 生留宿於店中, 輾轉不寐, 坐待晨鶴, 苦恨春宵之長也. 俄而斗杓初轉, 村鼓催鳴, 方欲呼童而秣馬矣.”

57) 위의 책, 31-32면 “生曰: ‘小子何敢生疑? 但人之好尚各異, 師父之眼, 何以與小子同乎?’ (중략) 楊生猶未快而歸, 翌日早起, 又往紫清觀. 鍊師笑曰: ‘楊郎早來, 必有故也.’ 生答曰: ‘不見鄭小姐, 則小子終有疑心. 師父念我母親之情托, 設計以某路, 使暫見也.’”

58) 위의 책, 34면 “楊生嫌其坐遠, 欲近見, 而請於夫人曰: ‘貧道請教於小姐, 而堂上廣闊, 恐不

- ④ 여장을 한 양소유가 「남훈곡」을 연주하자 정경패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소유는 말을 보태어 「봉구황」을 연주함으로써 정경패에게 구애의 뜻을 건넨다.⁵⁹⁾ 이에 양소유의 여장을 눈치 챘 정경패가 수치심을 느낀다.
- ⑤ 양소유가 부마로 간택되어 정경패와의 혼인이 어렵게 되자 가춘운도 양소유와의 인연을 끊으려 한다. 이에 양소유는 자신과 이미 동침을 하였으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춘운을 회유한다.⁶⁰⁾ 그러나 가춘운은 정경패와의 의리를 앞세워 양소유의 요청을 거부한다.
- ⑥ 군막에서 사흘간 동침한 후 십요연이 떠나려 하자 다른 자객이 오면 어떻게 하냐는 등 갖가지 평계를 대며 떠나는 것을 만류한다.⁶¹⁾
- ⑦ 백릉파가 양소유와의 동침을 나중으로 미루자 케변을 늘어놓아 결국 동침을 하게 만든다.
- ⑧ 사랑하는 정경패가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그 유언을 평계 삼아 가춘운을 버리지 않는다.⁶²⁾

위에서 보듯이 양소유는 다른 여성들과의 결연에서도 시종일관 천박한 속물근성을 드러낸다. 양소유의 속물근성은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인내와 절제를 보이지 못하는 양소유의 속물근성은 분명 외설과 음란이라는 지탄을 받기 쉽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남성 독자의 공감을 위해서 이보다 효과적인 장면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덟 여성과의 결연에서 빠짐없이 속물근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⁶³⁾

得仔細。夫人命侍女，進鍊師之座。侍女移席，更近夫人而置之。不遠小姐之座，而當其隅，不如遠見，生甚恨，而不敢更請矣。”

- 59) 위의 책, 36면 “貧道聞之，樂調九變，則天仙下來。俄奏者纔八，而猶有一曲。”
- 60) 위의 책, 67면 “春娘之情，可謂美矣。而春娘之身，與小姐不同。小姐則求吉土於東西南北，無害於道理。而春娘從小姐而事他人，何如於婦女之節行乎？”
- 61) 위의 책, 71-72면 “尚書曰：‘烟娘何比於尋常女子乎？方望良謀善策之誨，而何爲棄去也？’（中략）尚書曰：‘如是爲好，而卿去後，遣他刺客，則何以防備乎？’（中략）尚書欲挽留，而裊烟一竦身，不見矣。”
- 62) 위의 책, 101면 “吾何以負春娘？何況小姐之遺命如此！吾雖織女爲妻，宓妃爲妾，誓不忘春娘矣。”
- 63) 양소유의 속물근성은 성진에게도 나타난다. 성진은 물결을 헤치고 용궁에 들어가는 신통력을 지녔으면서도 팔선녀를 만나서는 다리를 건너게 해달라며 수작을 진다. 위의 책, 8면 “是日，性真至洞庭，躋琉璃之波，入水晶之宮。”； 같은 책, 10면 “昔達磨尊者，乘蘆葉涉大

양소유의 속물근성은 영웅 서사에 등장하는 ‘장난꾸러기 단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장난꾸러기 영웅은 자신의 능력을 아직 발휘할 줄 모르는 미숙한 어린아이로 묘사된다. 성인이 되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에 이룬 뒤에야 잠재력을 깨우치는 진정한 영웅이 되는 것이다.⁶⁴⁾

그런데 양소유는 사회적 성공과 애정 결연을 이룬 뒤에도 여전히 장난기를 버리지 못한다. 자신을 속인 여성들에게 꾀병으로 복수하는 장면이나 여덟 여성에게 고루 벌주를 내려야 한다며 떼를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정은 남성들의 천박한 성적 욕망이 결코 억제되거나 개선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여성의 애정 욕망과 이상적인 남성상

남성의 속물근성은 분명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양소유의 속물스런 행동은 그다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양소유의 속물스런 욕망은 때때로 좌절되며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는다. 『구운몽』의 여성들은 양소유의 속물근성을 혐오하지 않으며 이를 재미로 여기거나 거꾸로 이를 이용해 양소유를 골탕 먹이기도 한다.

그 까닭은 양소유의 속물근성이 억제가 불가능한 본능적인 성적 욕망에서 비롯한 것임을 여성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소유는 고의적으로 속물근성을 보이지 않는다. 잘못이나 결례인 줄 모르고 순간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소유는 속물근성을 꾸짖는 자상한 타이름에 곧바로 순종할 줄 알며 자신에게 골탕을 먹이는 여성들의 지혜를 칭찬하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소유의 속물스런 행동이 진실한 애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소유는 지고지순한 순정을 보임으로써 여성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을 구현한다. 공훈을 세울 때의 양소유는 냉철한 이성을 지닌 엘리트의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바보라고 할 만큼 순진한 면모를

海。和尙若學道於六觀大師，則必有神通之術，涉此小川，何難之有？而乃與兒女子爭道乎？”

64) 조지프 핸더슨(이윤기 옮김), 1996 「고대 신화와 현대인」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59-242면.

보인다. 공동체를 수호할 때의 영웅적인 선량함과 사적인 애정 결연에서의 인간적인 순정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 ① 한밤중에 진채봉을 만나려 하다가 진채봉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다.
- ② 기생인 계섬월을 정실로 맞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⁶⁵⁾
- ③ 목숨이 위태롭다는 두진인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귀신인 가춘운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⁶⁶⁾
- ④ 정경파와 가춘운의 계략에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두 여인의 지혜를 칭찬한다.⁶⁷⁾
- ⑤ 남장한 적경홍이 계섬월과 희롱하는 것을 보고도 두 사람에게 사연이 있을 것이라 좋은 쪽으로 이해해 준다.⁶⁸⁾
- ⑥ 연왕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적경홍에게 자신에게는 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며 겸손의 뜻을 보인다.⁶⁹⁾
- ⑦ 정사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후의 파혼 명령을 거슬러 옥에 갇힌다.
- ⑧ 목숨을 구해준 심요연의 은혜에 감사하며 백년해로를 약속한다.⁷⁰⁾
- ⑨ 백릉파와의 결연을 천명이라 여겨 순종한다.⁷¹⁾

65) 강전섭 소장본, 28면 “我之情, 何異於桂娘? 但我是貧秀才, 而堂上有老親. 與桂卿借老, 似違親意. 具妻妾, 則非桂卿之樂. 又求之天下, 恐難得爲桂卿女君之女子也.”

66) 위의 책, 49면 “〈翰林〉乃謂真人曰: ‘人之死生壽夭, 皆定於有生之初. 我苟有將相富貴之相, 鬼神其於我何?’ 真人曰: ‘夭亦相公也, 壽亦相公也. 無與於我矣.’ 乃拂袖而去. 翰林亦不強留焉.”

67) 위의 책, 53면 “楊生謂春娘曰: ‘春娘固慧矣. 而欲事人而先欺之, 在婦道何如?’ 春雲答曰: ‘只聞將軍之令, 不聞天子之詔.’ 楊生曰: ‘昔神女, 朝爲雲, 暮爲雨; 今春娘, 朝爲仙, 暮爲鬼; 足可敵也. 強兵無弱將, 裨將如此, 大將可知矣.’”

68) 위의 책, 57면 “翰林曰: ‘吾無疑蟾娘, 爾無嫌也.’ 因思: ‘狄生年少, 必難於見我, 當召而慰之’ 使人請之, 不知所之. 翰林大悔曰: ‘昔楚莊王絕纓, 而掩臣下之罪. 吾則深察暗昧之事, 而失佳士, 自責何及?’”

69) 위의 책, 59면 “鴻娘之高意, 楊越公之紅拂妓不及也. 但自愧無李衛公之才也.”隋의 개국공신인 越國公 楊素의 첨이었던 張紅拂은 李靖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양소한태서 도망친 후 이정과 결연한다. 이후 이정은 당 태종을 도운 공로로 衛國公에 봉해진다.唐 杜光庭, 『太平廣記』 권193, 豪俠一「虯髯客傳」 참조.

70) 위의 책, 71면 “卿旣救危命, 以身欲事, 何以報此恩乎? 惟願百年與之偕老耳.”

71) 위의 책, 76면 “尙書亦躍馬而出, 大笑曰: ‘洞庭龍女從少遊, 初生之時, 記于天曹. 吾但順從天命而已.’”

- ⑩ 영양공주가 정경패와 닮은 것을 깨닫고 정경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워한다.
슬픈 기색의 까닭을 묻는 영양공주에게 대놓고 정경패와 닮았다는 말을 한다.
이에 대해 화를 내는 영양공주를 오히려 나쁘게 여긴다.⁷²⁾

애정 결연에 있어서 양소유는 시종일관 순정과 지조를 보인다. 심지어는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려 한다. 자신의 일생이 남성에게 달려 있는 가부장제 하의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의 순정과 배려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다. 남성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줄 때 여성은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는다.

게다가 양소유는 당대 최고의 능력을 지닌 남자이다. 훌륭한 외모, 많은 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의 장난스런 속물근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귀여운 애교 정도에 불과한 셈이 된다. 초인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성공만으로는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여기에 상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보태져야 진정으로 이상적인 남성상이 되는 것이다.

영웅 이야기가 만들어진 가부장제 하의 여성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이상적인 남성의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인의 존경을 받는 영웅을 한 여성이 독차지할 수는 없다. 공동체를 수호하는 공로를 세운 영웅은 신과 동일한 지위에 오른다. 신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다. 자신을 따르겠다는 여성은 물리치는 것은 신의 자비로운 속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신을 섬기려는 다수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 된다. 이런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부다처제가 정당화된다.

그렇게 형성된 일부다처제는 잘못하면 여성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 잘 나타나듯이 여성끼리의 갈등은 남성과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문, 즉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또는 그렇다고 인식된다). 이는 결국 여성들 자신에게도 손해로 되돌아온다(또는 그렇다고 인식된다).

그런데 양소유는 여덟 여성 모두에게 순정을 다한다. 그 결과 여덟 여성은 한

72) 위의 책, 104-105면 “暗想：‘世上有相肖之人矣！吾與鄭小姐定婚時，心中與共死生。吾今得伉儷之樂，而小姐之孤墳，托於何處？’如是思想，顏色慘然。（중략）丞相自覺其誤，難於託他，直曰：‘吾不欺貴主矣。少遊前日定婚於鄭家時，見鄭氏女子，今榮陽之容貌聲音，實為彷彿。故追想古事，不覺見於色。使夫人疑，極不安心矣。’榮陽聞此言，顏色暫紅，起而入內，久不出來。（중략）丞相怒於心中，思想：‘天家女子，怙勢如此，為駙馬果難矣！’”

남자를 공평하게 섬김으로써 화해와 공존을 이룬다. 가부장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계질서를 세워 가문의 질서와 안녕을 완성한다는 설정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다. 순임금을 섬긴 아황과 여영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이상적인 가부장제 및 일부다처제가 『구운몽』에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가부장제 하의 여성에게도 만족스러운 것이 된다. 계섬월과 적경홍은 기생 신분을 벗어나고 정경패는 황족이 된다. 심요연은 일개 협객에서 명문가의 여인이 되고 진채봉은 반역도에서 여중서를 거쳐 다시 명문가의 여인이 된다. 가춘운도 봄종에서 귀한 신분이 된다. 백릉파는 용녀에서 인간으로 탈바꿈한다. 마침내 이들은 신분과 처지를 떠나 동렬에 놓이게 된다.

『구운몽』에는 남성의 지고지순한 순정 이외에 여성 독자를 위한 설정이 하나 더 존재한다. 이는 결연이 모두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되는 여러 사건들에 의해 구현된다. 모든 욕망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후에도 정경패의 죽음을 가장하여 여성들이 양소유를 속이는 일, 월왕과의 유흥 대결에서 양소유의 청들이 활약하는 일, 양소유가 처첩들에게 별주를 내리는 일 등이 이어진다.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이러한 설정은 남성 못지않은 여성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덧보태진 것이다. 영웅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모와 현명한 지혜를 타고나야 하며 나아가 남성의 사회적 성공을 도와야 한다.⁷³⁾ 여성들이 힘을 합쳐 양소유를 속이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뛰어난 재주와 지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의 욕망에 치우쳐 전개되는 서사 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정경패다. 양소유는 유독 정경패와의 결연에

73) 재능과 지혜를 빌휘하여 남성 영웅을 돋는 여성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왔다. 예컨대 평강공주는 온달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친의 말을 임금은 食言이나 戲言을 하지 않는다는 『書』와 『史記』의 내용으로 반박하는 지혜를 보인다. 강도를 피하기 위해 소매 속에 팔찌 수십 개를 차고 궁궐을 빠져 나오는 장면이나 온달의 집 문밖에 밤을 보낸 뒤 온달과 그 노모를 다시 설득하여 도덕적 혐의를 피하는 장면은 평강공주의 현명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들을 위해 名馬를 구해준 柳花처럼 평강공주 또한 온달에게 名馬를 구해주며 팔찌를 팔아 집안 살림을 일으킴으로써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돋는다.

서 여러 차례 속물근성을 드러낸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정경패는 이후 양소유를 두 번이나 속이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이는 양소유의 천박한 속물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본부인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 된다. 태후가 정경패를 자신의 큰딸처럼 여겨 수양딸로 삼는 것,⁷⁴⁾ 황제와 태후가 정경패의 시가 이소화의 시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것,⁷⁵⁾ 이소화가 첫째부인 자리를 정경패에게 양보하는 것⁷⁶⁾ 또한 정경패의 뛰어난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경패는 계략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는 양소유의 명청함을 조롱하며 남편을 ‘色中餓鬼’라 부르기도 한다.⁷⁷⁾ 이는 본부인이 가부장인 영웅보다 우월한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영웅은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집안에서는 본부인보다 아래에 놓인다. 집안의 대소사가 모두 본부인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황제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양소유를 조롱하는 정경패의 모습은 여성들이 바라는 가장 완벽한 애정 욕망을 대리로 충족시켜준다.

낙유원에서 펼쳐지는 양소유와 월왕의 유흥 대결 역시 여성들이 주인공이다. 계설월과 적경홍은 뛰어난 미모와 노래, 사냥 솜씨를 선보이지만 월왕 쪽의 세 여자를 압도하지는 못한다. 2대3의 열세는 심요연과 백릉파가 가세함으로써 4대 3으로 역전된다.

이후 양소유가 이처육첩에게 고루 별주를 내리고 여덟 여성의 결의형제를 맹세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었으므로 첨들 또한 본부인과 동등하다는 설정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본부인이 흔쾌히 첨들을 동렬로 인정해주는 장면은 여성 독자들의 사회적 욕망을 극단적으로

74) 강전섭 소장본, 91면 “吾本有女子二人矣。蘭陽之兄，死於十歲。吾每念蘭陽之孤單。今汝之容貌才氣，真蘭陽之兄弟，如見吾亡女。今以汝爲養女，告于帝而定位號。”

75) 위의 책, 94면 “太后示兩人詩於上。上嗟嘆曰：‘二詩俱絕妙，而榮陽之詩，引『毛詩』，歸于后妃之德化，尤得體。’太后曰：‘是矣。’”

76) 위의 책, 102-103면 “小女前日引趙姬之言，正爲此事。姐姐德性才學，俱非小女所及。雖在鄭門，小女猶爲趙姬之讓位。今爲兄弟之後，豈有尊卑？小女雖爲第二夫人，而王姬之尊貴，少無所損。而若處第一，則有何娘娘養育姐姐之意乎？必欲讓於小女，則歸于楊氏，情不願也。”

77) 위의 책, 107면 “胡不見瞞？但欲見恐懼之狀，甚瞑緩，不知厭惡鬼神。‘好色之人，色中餓鬼’云者，不虛，鬼神何畏鬼神？”

충족시켜준다.⁷⁸⁾ 남성 영웅이 주인공인데도 여성 독자들이 『구운몽』을 즐겨 읽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3) 남성의 성적 욕망과 이상적인 여성상

여성 독자의 공감을 위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의 진면목은 남성이 상상하는 ‘가장 완벽한 성적 욕망’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에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여성’과 그런 여성을 얻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형상화하였다는 뜻이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일부다처제의 옹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상적인 여성이란 결코 단수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남성이 바라는 외모·성격·재능을 한 몸에 갖춘 여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평생 4백 개 정도의 난자를 생산하지만 실제로 낳아 키울 수 있는 자식은 20명을 넘기 힘들다. 이에 반해 남성의 생식 능력은 평생 수천 명을 임신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남성은 본능적으로 다수의 여성과 결연을 맺고 싶어 한다.

다수와의 결연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레 각각의 여성들에게 서로 다른 성적 매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수컷이라는 생명체가 지닌 본능적 욕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양한 형질의 개체와 짹을 짓는 것이 진화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구운몽』의 여덟 여성은 모두 아름답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신분·처지·성격·재주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성진은 팔선녀에게 네 쌍의 붉은 복숭아꽃을 여덟 개의 구슬로 만들어 준다.⁷⁹⁾ 이는 팔선녀가 본부인인 정경파와 이소화, 잉첩인 가춘운과 진채봉, 기생인 계섬월과 적경홍, 비인간적인 존재인 심요연과 백릉파로 나님을 의미한다.⁸⁰⁾ 이에 따라 이들은 가문 내에서 서로 다른

78) 위의 책, 129-130면 “一日，兩夫人相議曰：‘古人，姊妹多人，嫁於一國，其中有妻有妾。今我二妻六妾，雖各姓，當爲兄弟，稱之以姊妹。’（중략）此後則六人雖守各分，不敢以兄弟稱號，而兩夫人則常時稱以妹子，恩意尤至矣。”

79) 위의 책, 10면 “手折桃花一枝，以擲仙女之前。四雙絳萼，卽化爲明珠。祥光滿地，瑞彩燭天，若出於海蚌之胎也。”

80) 백릉파는 용녀이므로 사람이 아닌 신령이다. 심요연도 바람을 올라타고 번개를 따라가며

역할로 양소유를 내조한다.⁸¹⁾

먼저 주목할 대목은 七步詩의 창작과 이에 대한 해석이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다. 사실 이 장면은 서사 전개와 큰 상관이 없어서 한시에 관심이 없는 독자라면 지루하기 짹이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글본에는 이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 한문 교양을 갖춘 독자를 위한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정교한 짜임새를 자랑하는 『구운몽』에 왜 이처럼 허술한 서사 전개가 나타나는 것일까?

칠보시를 짓는 인물은 본부인인 정경파와 이소화, 임첩인 진채봉과 가춘운이다.⁸²⁾ 이들은 양소유 가문의 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과 도우미들이다. 칠보시 장면은 이들 네 여성에게 作詩의 능력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봐야 한다. 가부장제 하의 안주인이 갖춰야하는 첫 번째 덕목은 집안 살림, 자녀 양육, 시부모 봉양을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것이다. 즉, 바깥일로 지친 가장을 집안일로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⁸³⁾

시는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 대부분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언어를 가장 고차원적으로 활용한 것이 시이다. 일상 언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심층적인 의미와 기능까지 파악하고 있어

순식간에 천 리를 가는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다. 위의 책, 70면 “三年之間，才盡成，能乘風隨電，瞬息之間行千里。”

- 81) 이에 대해서는 김종군, 2005 『남녀애정결연서사 연구』, 박이정출판사, 74-76면 참조.
- 82) 심요연이야 협객이니 한시를 지을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계설월과 적경홍은 기생이므로 한시를 지을 줄 안다고 봐야 한다. 백릉과 역시 용왕의 딸이므로 한시에 대한 교양이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들은 한시를 짓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첨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양소유의 성적 폐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역할이므로 구태여 한시 창작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83) 유승호, 「CEO 55% “진정한 내조의 여왕은 해라형”」 『한국경제』 2009년 5월 20일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배우자가 회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챙기는 ‘해라형’ 내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영자 대상 사이트인 ‘세리CEO’(www.sericeo.org) 회원 488명을 대상으로 ‘가장 큰 힘이 되는 내조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55.3%가 ‘해라형’을 선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해라는 제우스의 아내로 결혼과 출산을 관장하는 가정의 여신이다. 이번 설문에서는 살림과 자녀 교육 등 집안일을 묵묵히 완수함으로써 남편이 회사 일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유형으로 제시됐다.”

야 시를 이해하고 창작할 수 있다.

공자는 시를 알아야 사리에 통달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⁸⁴⁾ 시를 안다는 것은 집안일에 필요한 고급 지식과 그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남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잔소리를 늘어놓아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⁸⁵⁾

한편, 칠보시를 지은 네 여성은 또 다른 공통점을 지닌다. 정경쾌는 일체의 외출을 삼가고 부모를 위해 자신의 장래까지 포기하려 한다. 이소화는 황족임에도 불구하고 인륜을 앞세워 여염 규수에 불과한 정경쾌의 처지를 옹호한다. 가춘운은 정경쾌에 대해 진퇴와 생사를 같이하는 의리를 보여주며 진채봉은 양소유에 대한 절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안주인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덕목인 예의와 법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예는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연령·성격·지식·직업·지위 등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용모·차림·태도·언행을 갖추는 것이 예이다.⁸⁶⁾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인 예는 집안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안주인은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한편 예에 어긋나지 않을까 조심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 지켜야 한다.⁸⁷⁾

본부인과 잉첩은 시와 예를 갖추었다는 공통점을 보이지만 서로 구분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첫 번째는 태몽의 유무이다. 여덟 여성 가운데 태몽이 나타나는 것은 본부인인 정경쾌와 이소화뿐이다. 성진은 팔선녀에게 복숭아꽃을 구슬로 만들어 선물하는데 정경쾌와 이소화만이 선녀·꽃·구슬이 등장하는 태몽

84) 『論語』「季氏」“曰：‘學詩乎？’對曰：‘未也。’‘不學詩，無以言。’鯉退而學詩，事理通達，而心氣和平，故能言。”；『論語·子路』“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爲？”

85) 『易』「繫辭上」“亂之所生也，則言語以爲階。君不密則失臣，臣不密則失身。幾事不密則害成，是以君子慎密而不岀也。”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을 섬기는 신하는 특히 그 언어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남편을 섬기는 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86) 『論語』「季氏」“他日又獨立，鯉趨而過庭。曰：‘學禮乎？’對曰：‘未也。’‘不學禮，無以立。’鯉退而學禮，品節詳明，而德性堅定，故能立。”

87) 『毛詩正義』권1, “作「草蟲」詩者，言大夫妻能以禮自防也。經言：在室則夫唱乃隨，既嫁則憂不當其禮，皆是以禮自防之事。”

을 갖고 태어난다.⁸⁸⁾

양소유는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이므로 비범한 출생을 보인다. 그러므로 본부인 또한 남편처럼 비범하게 출생해야 한다. 정경파와 이소화는 성진과 팔선녀의 첫 만남을 연상시키는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설정은 두 여성에게만 본부인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형상화한다.

본부인인 정경파와 이소화의 두 번째 공통점은 시와 예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조예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경파는 거문고 감상의 일인자이며 이소화는 통소의 달인이다. 두 사람이 섬기는 양소유는 거문고와 통소 모두 최상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다. 양소유와 본부인의 결연은 모두 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악은 해석되지 않는 기호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예술이다. 문학의 언어나 회화의 형상과 달리 음악의 소리는 그 높낮이와 길이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음정과 박자는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음악은 사물과 의지 자체의 내적 본질을 훼손 없이 그대로 전달한다. 그 결과 음악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추상적이고 순수한 예술이 된다.⁸⁹⁾

서로 다른 소리가 화음을 이루어야 진정한 음악이 된다. 음악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실제로 구현한다.⁹⁰⁾ 양소유와 두 본부인은 백아와 종자기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교감을 주고받는다.⁹¹⁾ 이를 통해 정경파와 이소화만이 양소유 가문의 질서와 조화를

88) 강전섭 소장본, 33면 “蓋鄭司徒無他子女，唯育小姐一人。夫人臨產，精神昏困之際，見一娥仙持一箇明珠入房，而生小姐，名瓊貝。”; 같은 책, 59면 “公主誕生時，太后夢見仙花及紅珠矣。”

89) 이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3권 침조, 음악이 재현하는 형이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현대의 문학가와 미술가들은 음악적인 기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李箱은 악보의 음계를 연상시키는 단어와 문장을 무의미하게 늘어놓는 방식으로 「오감도」를 짓는다. 잭슨 폴락은 거대한 캔버스에 제멋대로 물감을 뿌림으로써 음악이 추구하는 카오스 속의 코스모스를 의도한다. 이들은 자신의 시와 그림에 모두 음악처럼 작품 번호를 붙인다. 李箱은 처음에 그림에 관심을 두어 건축 설계를 직업으로 삼았다가 이후 문학가로 활동하였으며 나중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다방과 카페의 주인이 된다.

90) 『禮記』『樂記』“故樂者，審一以定和，比物以飾節，節奏合以成文，所以合和父子君臣，附親萬民也。是先王立樂之方也。”

91) 양소유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는 통소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본부인인 정경파와 이

구현할 수 있음이 분명하게 형상화된다.⁹²⁾ 정경쾌와 이소화는 공자가 말한 “興於詩, 入於禮, 成於樂.”의 단계를 끝까지 터득했다는 점에서 진채봉, 기춘운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양소유의 본부인과 잉첩은 지식과 지혜, 禮儀와 靈感을 모두 갖춘 완벽한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게다가 이들은 아름다운 외모까지 갖추고 있다.⁹³⁾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성의 성적 욕망은 결코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는다.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가 짧은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요염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여성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에 자신의 여성성을 다른 남성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남성의 눈길을 끌지 못하도록 자신의 여성에게 각종 성적 금기를 강요한다.

그러면서도 남성은 정작 자신의 성적 욕망에는 매우 관대하다. 수많은 유흥업소와 여성 아이돌의 주요 고객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장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인에게 없는 성적 매력으로 무장한 짧은 여성들의 유혹에 쉽사리 굴복한다. 짧음과 활기를 앞세운 이 여성들은 노출, 화려한 화장, 견약과 절제를 벗어난 과감함과 대담함, 도덕규범에서의 일탈로 인한 즐거움(guilty pleasure) 등을 내세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혼남성들을 유혹한다.

『구운몽』에서는 기생 출신인 계섬월과 적경홍이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소화다. 강전섭 소장본, 133면 “兩夫人斂衽而問曰：‘丞相，功名已成，富貴已極，萬民之所羨，千古之所未聞。當佳辰，弄風景，香酒滿酌。佳人在傍，此亦人生之喜事，而簫聲如此？今日洞簫，非舊日洞簫也。’”

92) 음악을 통해 양소유와 결연하지는 않으나 백릉파도 낙유원 연회에서 湘靈曲을 연주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조예를 자랑한다. 백릉파는 용왕의 딸이므로 정경쾌와 이소화처럼 고귀한 신분에 속한다. 이처럼 상층 여성의 음악을 통해 자기 위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주영, 2013 「고전소설 음악 관련 장면의 변화와 그 의미」 『국문학연구』 28, 201-224면 참조.

93) 집안일을 떠맡는 아내가 시·예·악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아름답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낮잠에서 깨어난 얼굴로 양소유와 대면하는 진채봉에 대한 묘사가 주목된다. 잠에서 막 깨난 얼굴, 즉 화장이 흐트러진 얼굴이나 민낯은 여성들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인데 『구운몽』에서는 이조차 매우 아름답게 묘사된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안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상의 외모는 화장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얼굴이다. 강전섭 소장본, 17면 “如雲之髮，垂于鬚邊，玉釵半傾，而春睡不足，困惱之狀，天然秀麗，語難形容，畫難彷彿。”

은 춤과 노래로 양소유를 즐겁게 한다. 양소유 가문에서 이 둘의 역할은 연회에 필요한 가무를 책임지는 것이다.⁹⁴⁾ 심지어는 양소유를 속이고 적경홍이 계설월인 양 동침을 하거나 두 사람이 동시에 양소유와 동침하기도 한다.⁹⁵⁾ 이는 본부인에게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다. 본부인과의 동침은 일체의 묘사 없이 그저 “밤을 함께했다”라고만 표현된다.⁹⁶⁾

양소유의 성적 욕망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적경홍과 심요연은 男裝을 한 상태로 양소유와 처음으로 대면한다. 적경홍은 연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 전란 등의 위기에서 겁탈을 피하기 위해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심요연 또한 남장인 군복을 입고 등장한다. 잔 다르크나 목란의 경우처럼 이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시대에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남장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나체로 경기를 벌인 것도 남장 여성의 출전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구운몽』의 남장 여성은 성적 유희의 성격이 보태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양소유는 남장한 적경홍을 衛玠와 潘岳 같다고 여겨 동행으로 삼는다. 위개와 반악은 남장 여자라 해도 좋을 미소년들이다.⁹⁷⁾ 양소유는 남장한 적경홍과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마주앉아 밥을 먹으며 함께 산수와 풍월을 즐긴다. 이는 동성애 모티프를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 여장을 한 양소유가 정경패와 마주하는 장면이나 남장한 적경홍이 담을 사이에 두고 계설월과 희롱하는 장면 또한 이와

94) 위의 책, 113면 “宮中風樂女妓八百餘人，才色極擇於天下。分左右部，左部四百人，桂蟾月領之；右部四百人，狄鷺鴻領之。教歌舞管絃，每月三會清霞樓，操練較才。而時或丞相及夫人，侍大夫人，而親爲等第，賞罰兩邊教師。”

95) 위의 책, 57면 “是夜，蟾娘話舊，連傾數杯，滅燭就寢，恩情益繩綯矣。朝陽照東窓後，翰林始舉頭視之。蟾娘先起，對鏡調脂粉，而忽覺異於蟾娘。驚起詳見，則綠眉青眼，雲鬟花頰，細腰弱態，似蟾娘而第非蟾娘也。”； 같은 책, 59면 “此日與兩美人共夜。”

96) 위의 책, 103면 “此日與榮陽共夜。（中략）第二日與蘭陽共夜。”

97) 반악이 외출할 때면 여자들이 손을 맞잡아 둘러싸고는 과일을 던져주었다고 하여 ‘擲果盈車’라는 말이 생겼다. 위개는 어렸을 때 양이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 외출하곤 하였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玉人’이라 칭송하였다. 병약하여 과로로 죽었으나 사람들이 이 너무 쳐다봐서 죽었다는 ‘看殺衛玠’라는 말이 생겼다.

유사하다.

한편, 심요연이 입은 군복은 특정한 이들만이 입을 수 있는 제복에 해당한다. 어떤 남성들은 특정 능력과 자격을 상징하는 제복을 입은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이른바 제복 페티시즘이다. 이는 군복을 입었음에도 숨길 수 없는 심요연의 여성적인 매력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양상서(양소유)가 그 여자를 보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을 높게 틀어 올려 금비녀를 꽂았는데 석죽화가 수놓인 협수와 전포를 입고 꽃이 수놓인 작은 신발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용천검 칼집을 차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절세 미모가 마치 해당화 한 가지와 같았으니 <아버지 대신> 군대에 간 목란 아니면 상자를 훔친 홍선과도 같았다.⁹⁸⁾

심요연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틀어 올린 머리와 금비녀, 꽂을 수놓은 옷과 신발은 심요연의 여성적인 미모를 드러내며 협수, 전포, 용천검은 심요연의 남성다움을 암시한다. 초록색의 군복과 그 위에 수놓인 빨간 석죽화는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한다.⁹⁹⁾ 이는 푸른 이파리 사이에 만개한 붉은 해당화와 같다고 묘사된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심요연의 외모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 남장을 한 목란과 홍선을 연상시킨다. 아버지 대신 종군한 목란의 남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전쟁터의 동료들은 12년만에야 목란이 여자임을 알아챈다.¹⁰⁰⁾ 홍선은 열아홉 살의 아리따운 소녀이지만 전생에 남자였기에 남자다운 능력을 갖고 태

98) 강전섭 소장본, 70면 “楊尙晝見其女子，如雲之髮，高髻而笄金簪，挾袖戰袍，繡石竹花，穿如鳳頭繡靴，腰佩龍泉鉤匣。天然絕色，如一枝海棠花，若非從軍之木蘭，則是偷盒之紅線也。”

99) 조선 순조 때의 「春鶯囀」에 등장하는 舞童의 복장이 심요연의 차림새와 유사하다. 「춘앵전」은 孝明世子가 모친인 純宗肅皇后의 40세 實齡을 축하하기 위해 창제한 鄉樂呈才이다. 이에 대한 기록인 『進爵儀軌』에 실린 그림을 보면 舞童이 초록 바탕에 붉은 石竹花를 수놓은 挾袖와 戰袍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동달이’라고도 부르는 협수는 소매가 좁은 군복이며 ‘戰服’으로 쓰기도 하는 전포는 협수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군복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혜경, 2006 「조선시대 舞童服飾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100) 미상, 『樂府詩集』 권25, 橫吹曲辭五 「木蘭辭」 “脫我戰時袍，著我舊時裳。當窗理雲鬢，挂鏡帖花黃。出門看火伴，火伴皆驚惶。‘同行十二年，不知木蘭是女郎。’”

어난다. 심요연과 유사하게 홍선의 남장 또한 높게 틀어 올린 머리, 금비녀, 자줏빛 수가 놓인 짧은 옷, 푸른 실로 동여맨 가벼운 신발, 가슴에 찬 용무늬 비수 등으로 묘사된다.¹⁰¹⁾

남장 여성은 보이시한 스타일의 여성을 선호하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결부되기도 한다. 적경홍과 심요연은 실제로 남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적경홍은 남자처럼 당차게 말을 내뱉으며¹⁰²⁾ 남자 못지않은 사냥 솜씨에 남자 흉내를 내기도 한다.¹⁰³⁾ 심요연도 초인적인 무예로 토번의 자객들을 한 번에 무찌르는 한편 남성 보다 우월한 검무 솜씨로 월왕의 친탄을 자아낸다.¹⁰⁴⁾

남장 여성과 상관되는 동성애와 폐티시즘은 예로부터 변태 성욕으로 치부되어 금기시된 것들이다. 그러나 성적 유희로서의 남장 여성은 그 유래가 무척 오래 되었다. 齊靈公은 부인을 남자처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였고¹⁰⁵⁾ 남장한 기생과 행락을 즐기는 풍속도 있었다.¹⁰⁶⁾ 忠烈王은 아름다운 기생·노비·무당을 뽑아 비단옷에 말총갓을 입힌 뒤 '男粧'이라 부르며 희롱하였다.¹⁰⁷⁾ 조선 시대 때도 기

101) 唐袁郊, 『甘澤謠』 권1, 「紅線」 “梳烏蠻髻, 攢金鳳釵, 衣紫繡短袍, 繫青絲輕履, 胸前佩龍文匕首, 頸上書太乙神名.”

102) 강진섭 소장본, 114-115면 “蟾郎子僞言耶, 眞言耶? 我兩人橫行關東七十餘州, 有名之美色, 超獨之風樂, 無不見之, 未嘗見負於人, 何獨讓於玉燕乎? 今世有傾國傾城之李夫人, 爲雲為雨之神女, 則猶可一分辭讓, 而不然則吾何畏彼哉?”

103) 위의 책, 120-121면 “飛上馬, 周行帳前, 而一雉見逐於狗而高飛. 驚鴻回細腰而彈弓繳, 五色之羽, 墜於空中. 丞相及越王大笑矣. 驚鴻還馳, 下馬於帳前, 為男子之聲, 而弓箭還納於丞相, 從容入座. 諸娘子皆稱賀矣.”

104) 위의 책, 71면 “故妾往藩國解榜, 賛普招見, 與先來刺客十餘人, 較劙術. 妾斬十餘人之髻以獻.”; 같은 책, 122면 “越王始定精神, 問裊烟曰: ‘人間劙舞, 何以至於此? 吾聞神仙有爲劙術者, 娘子非其人耶?’”

105) 『晏子春秋』 内篇 雜下 “靈公好婦人而丈夫飾者, 國人盡服之. 公使吏禁之, 曰: ‘女子而男子飾者, 裂其衣, 斷其帶’ 裂衣斷帶, 相望而不止. 晏子見, 公問曰: ‘寡人使吏禁女子而男子飾者, 裂斷其衣帶, 相望而不止者, 何也?’ 晏子對曰: ‘君使服之于內, 而禁之于外, 猶懸牛首于門, 而賣馬肉于內也. 公何以不使內勿服? 則外莫敢爲也.’ 公曰: ‘善’ 使內勿服. 不踰月, 而國人莫之服.”

106) 唐李廓, 『樂府詩集』 권66, 雜曲歌辭六 「長安少年行」(10수 중 5수) “遨遊携艷妓, 裝束似男兒.”; 唐李賀, 『樂府詩集』 권82, 近代曲歌辭四 「十二月樂詞·三月」 “軍裝宮妓掃蛾淺, 搖搖錦旗夾城暖.”; 宋汪元量, 『永樂大典』 권2264, 西湖·汪元量湖山類藁 「西湖舊夢」 (10수 중 7수) “帝城官妓出湖邊, 盡作軍裝鬪畫船. 奪得錦標權遺喜, 金銀闕會賞嬋娟.”

생들이 군복을 입고 검무를 추었고¹⁰⁸⁾ 이를 위해 아예 어릴 때부터 남장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다.¹⁰⁹⁾ 여자 무당들 또한 남장을 하고 굿을 하였다.¹¹⁰⁾

조선 시대 여성 영웅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장 여성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¹¹¹⁾ 성적 금기를 일탈한다는 묘한 쾌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져서 아예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남장 여성의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얻는 경우도 많다.¹¹²⁾

한편, 양소유와 심요연이 동침하는 장면 또한 일탈을 추구하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잘 보여준다. 『구운몽』은 동침 장면에 대한 묘사가 간략하다는 특징을 보이는데¹¹³⁾ 다음은 매우 예외적인 장면에 해당한다.

107) 『高麗史』 권71, 樂志 俗樂 “王狎群小，好宴樂。倅臣吳祈、金元祥，內僚石天補、天卿等，務以聲色容悅。以管絃房太樂才人爲不足，遣倅臣諸道，選官妓有姿色伎藝者。又選城中官婢及女巫善歌舞者，籍置宮中，衣羅綺，戴馬鬃笠，別作一隊，稱爲男粧。”

108) 김만중의 시에도 남장 여성의 검무를 추는 모습이 보인다. 김만중, 『西浦集』 권2(『한국문집총간』 148), 「觀黃昌舞」, 24면 “繁絃欲停催撻鼓，翠眉女兒「黃昌舞」。短後之衣頭虎毛，頗似木蘭行負羽。” 기녀들의 검무와 남장에 대한 자료는 조혁상, 2015 「조선조 기녀 검무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동방한문학』 64, 91-120면 참조.

109) 申光洙, 『石北集』 권1(『한국문집총간』 231), 「寒碧堂」(12수 중 3수), 204면 “全州兒女學男裝，寒碧堂中劖舞長。轉到瀾漪看不見，滿堂回首氣如霜。”

110) 申佐模, 『澹人集』 권3(『한국문집총간』 309), 「賽神曲」(10수 중 2수), 267면 “桃紅廣帶紫羅纓，結束男裝太慄生。急管一聲齊跪拜，城隍帝釋四方迎。” 제목 아래의序에 “東行踰葛峴，處處城隍及叢祠。巫女聚會，具糈祈年禳灾.”라 하였다.

111) 여성 영웅의 남장에 대해서는 이윤경, 2000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여문학』 13, 263-292면 참조.

112) 대표적인 예로 「카페 프린스」, 「바람의 화원」, 「성균관 스캔들」, 「미남이시네요」, 「잘 키운 딸 하나」, 「미인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는 남장 여성의 전형적인 캐릭터의 하나로 등장하기도 한다. 2012년에 방영된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의 원작은 남장 여성의 주인공인 일본 만화이다. 결 그룹을 결성할 때 f(x)의 멤버처럼 일부러 보이시한 스타일의 멤버를 집어넣기도 한다.

113) 강전섭 소장본, 27면 “相携而就寢席，雖巫山之夢、洛水之逢，不過此也。”; 같은 책, 45면 “相携就寢席，如劉、阮入天台山遇仙子，恍惚不可形容矣。”; 같은 책, 47면 “携其女子，就寢席而共夜，恩情加於前矣。”; 같은 책, 104면 “此夜，說舊情，講新歡，尤親悅於第一第二之夜矣。”

이날 밤 상서(양소유)와 요연이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창검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딱따기 소리로 금슬을 삼았다. 복파장군의 군영에 달이 등글고 옥문관 밖에 봄빛이 가득하였다. 한 조각 감정과 흥분이 한밤중의 비단 장막보다 더하였다. 상서가 새로운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어 사흘이나 장수들을 만나지 않았다.¹¹⁴⁾

『구운동』의 동침 장면 중 묘사가 가장 자세한 대목이다. 외설과 음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한시의 형식을 벌려 동침 장면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말초적인 감각의 성적 쾌락을 온유돈후의 수법으로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럴 바에야 다른 경우처럼 아예 묘사를 생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심요연과의 동침 장면이 자세히 묘사된 것은 배경과 상황이 파격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녀의 동침은 대개 여러 번의 만남 뒤에 이루어진다. 남성은 여성의 외모만 보고도 성적 욕망을 느끼지만 여성은 남성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만 동침을 허락하기 때문이다.¹¹⁵⁾

남녀가 만나자마자 동침을 한다는 설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물의 감정을 고조시켜주는 배경과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십월이나 가춘운과의 동침 장면에 등장하는 달빛, 꽃, 歌舞, 詩酒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또한 은밀하고 사적인 시간과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최치원」이나 「이생규장전」 등 전기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양소유와 심요연은 처음 만난 날에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곧바로 잠자리를 함께한다. 詩酒와 歌舞도 없이 창검과 딱따기를 배경 삼아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반공개적인 장소인 군막은 사실상 남녀의 결연이 어려운 곳이다. 이런 곳에서의 동침은 공개 노출이나 관음증 같은 변태 성욕을 연상시킨다. 개적인 장소에서의 애정 행각은 은밀한 공간에서의 연애보다 더 큰 쾌락을 선사한다. 양소유는 공무 수행 중에 사사로운 행위를 벌임으로써 도덕적 일탈에 따

114) 위의 책, 71면 “此夜尙書與裊烟共寢席。檜鋤之色代花燭，刁斗之聲作琴瑟。伏波營中月色圓，玉門關外春光滿。一片情興，似過於深夜錦帳矣。尙書沈溺新歡，三日不見將。”

115) 체온 변화와 체중 증가 등 급격한 신체 변화가 수반되는 임신은 여성의 노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생존에 위기를 가져온다. 출산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행위이고 양육은 인생을 바쳐야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목숨과 인생 전부를 책임져줄 수 있는 남성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동침을 허락한다.

른 쾌락까지 덤으로 얻는다.¹¹⁶⁾ 평범하지 않은 이런 쾌락은 “사흘이나 장수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말로 표현된다.

양소유의 일탈적 성욕은 백릉파와의 결연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백릉파가 양소유와 천정배필임을 알리자 양소유는 그 자리에서 동침을 요구하는 속물근성을 보인다. 이에 백릉파는 부친께 아직 허락을 얻지 못하였고, 자신의 몸에 비늘이 있으며, 남해 태자가 언제 변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면 동침을 거절한다.¹¹⁷⁾ 이에 대해 양소유는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는다.

남자의 말씀이 비록 아름다우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소. 남자가 〈이곳에〉 온 것은 스스로 지조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지만 또한 나를 따르라는 아버님의 명령을 존중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찌 아버님의 명령이 없다고 하시오?

남자는 신명의 후손이요 영이한 존재로서 인간과 신령 사이를 드나들며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비늘이 있다고 험오스럽게 여기겠소?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천자의 명령을 받아 백만의 용감한 병사를 이끌고 있소. 풍이가 앞에서 인도하고 해약이 뒤에 진을 치고 있으니 남해의 어린애는 모기와도 같소. 녀석이 제 힘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 보검을 더럽하게 될 뿐이오. 달이 희고 바람이 맑으니 이 좋은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¹¹⁸⁾

백릉파는 양소유와의 결연 자체가 아니라 당장의 동침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양소유의 첫 번째 반박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남해 태자가 거느린 군대의 규모나 전법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승리를 장담하는 것은 대원수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116) 군진은 금녀의 공간이지만 대원수에게는 예외가 된다. 야전사령관은 군막에 여자를 들입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부하들에게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설정은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117) 강전섭 소장본, 75면 “妾之陋質，許於君子者久，而今便侍郎君不可者有三。一則不告父母，女子從人，不可如是苟且也。二則妾將得人之身以事君子，今以鱗甲之身，不可侍寢席也。三則南海龍子，每遣人探聽，誠出狂計，則恐有一場之撓也。郎君須速還陣，整齊三軍，成大功，奏凱歌，而歸京師，則妾當褰裳涉溱矣。”

118) 위의 책, 75면 “娘子之言雖美，吾意不然。娘子之來此，雖自守志，而亦尊父王之使從少遊之意也。何謂無父命？娘子是神明之孫，靈異之類，出入人神之間，無所不可。使嫌有鱗甲乎？少遊雖無才，受天子之命，率百萬雄兵，馮夷導前，海若後陣，南海幼兒視如蚊，渠若不量力，則不過污我寶劍而已。月白風清，不可虛送良夜。”

양소유의 두 번째 반박은 남성의 속물스러운 성적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백릉파는 몸에 비늘이 있으므로 나중에 인간으로 탈바꿈한 뒤에 동침을 하겠다고 말한다. 여성이 몸 상태를 이유로 들어 동침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동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처신이 된다. 도미의 아내가 월경을 핑계로 동침을 미루자 폭군인 개루왕조차 이를 허락한 바 있다.¹¹⁹⁾ 그런데 도덕 군자라 할 수 있는 양소유는 백릉파의 정당한 거절을 궤변으로 물리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 자리에서 충족한다.

양소유는 인간이고 백릉파는 龍女이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동침은 생태계의 원리를 거스르는 불경스러운 이종교배에 해당한다. 인간과 異物 사이의 결연은 성적 도착증이라 인식되어 철저하게 금기시된다.¹²⁰⁾ 완판본에서는 이 장면을 “그 즐거움은 쁨도 아니오 인간으로서 빅 배나 승호더라”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장면은 분명 『구운몽』을 음란과 패륜으로 비판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

김만중은 양소유가 보통사람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곤란한 상황을 회피한다. 신이나 영웅이 이물과 교합하는 것은 신화와 영웅 서사에 흔히 나타나는 설정이다. 제우스는 황소, 백조, 뼈꾸기 따위로 변신하여 여신과 인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동침한다. 환웅도 사람의 모습을 빌려 옹녀와 동침한다[雄乃假化而婚之].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천신이 다양한 종류의 지상 존재와 결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신체의 결합을 통하여 다른 존재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다.¹²¹⁾ 인간과 가장 닮지 않은 용과 뱀 따위의 파충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였다. 이런 존재와 결연한 신과 영웅은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획득한 초월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가 용녀인 허황옥과 결연한 것을 음란하다고

119) 『三國史記』 권48, 列傳 「都彌」 “婦曰：‘今良人已失，單獨一身，不能自持。况爲王御，豈敢相違？今以月經，渾身污穢，請俟他日薰浴而後來。’王信而許之。”

120)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금기되는 小兒性愛, 屍姦, 獸姦 등은 생식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21) 다른 존재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구지가」나 식인 풍습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을 잡아먹는 것이다.

보는 이는 없다. 수로부인, 거타지, 견훤, 작제건, 구렁덩덩신선비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습에 익숙한 독자는 천신에 해당하는 양소유가 용녀와 동침을 하더라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성적 금기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격화’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수법은 양소유와 가춘운의 결연 과정에도 보인다. 정경패는 양소유와 혼약한 상태인데도 몸종인 가춘운을 자기보다 먼저 양소유와 동침하게 한다. 정경패의 모친인 최씨 부인이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분명 패륜이다. 정혼자가 있는데도 그 몸종과 먼저 동침을 하는 양소유를 어찌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만중은 양소유와 가춘운을 천상계의 존재라고 설정함으로써 이런 곤란한 상황을 회피한다.¹²²⁾ 전생의 인연이 있는 천신과 선녀가 동침을 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소유와 백릉과 또한 전생의 인연이 있으므로 인간과 이물 사이의 동침이 부도덕한 패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구운몽』의 여덟 여성은 다양한 여성과 결연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준다. 『구운몽』은 『소현성록』과 더불어 가장 많은 여성과 결연한 소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일대팔의 구도로 결연하면서도 여성들 사이의 갈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현성록』과 다르다. 또한 여덟 명의 여성이나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점에서 『육포단』이나 『호색일대남』과도 구분된다.

여기에서 남성들이 욕망하는 가장 완벽한 애정 결연의 또 다른 요소가 드러난다. 여성들끼리의 갈등이 전혀 없는 화목한 일부다처제가 그것이다. 이는 남성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가족제도이다. 『구운몽』의 여덟 여성은 양소유에게 매우 헌신적이며 순종적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처녀, 기생, 무녀, 비구니, 유부녀 등 수많은 여성들과 결연하는 『호색일대남』에 비해 『구운몽』은 고작(?) 여덟 명의 여성과 결연하지만 모든 여성은 조화롭게 거느린다는 점에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보다 안전하게 충족시킨다.¹²³⁾

122) 강전섭 소장본, 44-45면 “妾本瑤池王母侍女, 郎君卽上清仙子. 玉帝命朝於王母, 偶見妾而以仙果相戲. 王母怒白上帝, 郎君墮人間, 妾謫此山中.”

123) 이에 대해서는 채민정, 2013 「『好色一代男』에 나타난 여성상 고찰: 동시대 조선조 소설 『구운몽』과의 비교를 통해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물론 끝이 없는 남성의 성적 욕망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구운몽』의 애정 서사에 불만을 가지는 남성 독자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남성은 새로 운 젊은 여성과 계속해서 결연하기를 원한다. 도색소설은 이러한 남성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그런데 양소유는 여덟 여성과의 결연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젊은 여성과 결연하지 않는다. 김만중은 여덟 여성의 점점 더 짚어진다는 설정으로 이러한 학계를 교묘히 회피한다.¹²⁴⁾

한편, 『구운몽』은 성적 욕망의 성취 방식에서도 가장 완벽한 형태를 보여준다. 사회적 성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능력’에 ‘적당한 노력’을 기울여 결연하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세상에서 구애는 대개 남성의 몫이다. 마음에 드는 여성의 호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간·비용·정성을 들여야 한다. 결연에 성공할 때까지 대상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성에게는 이성과의 결연만큼이나 사회적 성공 또한 중요하다. 결연 과정에서의 거듭된 실패는 남성의 노동력과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힌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자원 낭비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경쟁에 애정 결연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무리를 이루는 사회적 동물의 경우에 잘 나타난다. 이들 동물의 수컷들은 공동체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경쟁한다. 수컷들은 서열 경쟁, 즉 사회적 성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리에서 나오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한다.

최후의 승자는 공동체의 재화를 독차지한다. 여기에는 무리의 암컷까지 포함된다. 목숨을 건 경쟁에서 승리하였기에 여럿의 암컷을 독차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분명 우월한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구운몽』에도 이러한 경쟁의 면모가 보인다. 기생인 계섬월과 적경홍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짚고 아름다운 처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순결한 여

124) 강전섭 소장본, 131면 “丞相本佛家高弟子，諸娘子南岳仙女，稟氣靈異。丞相又傳受藍田山道人之仙方，春秋雖高，而九人之容貌益少，時人疑以神仙。”

성과의 결연은 남들에 앞서 재화를 획득하려는 남성의 정복욕을 충족시킨다. 양소유는 낙양의 자제들과 경쟁하여 계섬월을 차지한다. 장원급제로 정경폐와 정혼하는 것도 경쟁자를 물리친 것에 해당한다. 적경홍은 원래 연왕의 첨이었다가 결국에는 양소유의 배필이 된다. 심요연도 공을 세우면 귀비로 삼겠다고 한 토번의 찬보 대신 양소유를 선택한다.¹²⁵⁾ 백릉파와의 결연은 남해 태자와의 무력 대결에서 승리한 대가이다.

이처럼 양소유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덟 여성과 결연한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진화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논리에서 비롯한 이러한 설정은 은연중에 가부장제와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한다.¹²⁶⁾

속물스런 남성들은 애정 결연을 둘러싼 경쟁에서 쉽사리 이기기를 갈망한다. 이는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더라도 그 잠재력을 알아보는 여성이 먼저 구애해주기를 바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이 부담해야 하는 자원과 에너지의 소모를 여성이 떠안아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진채봉과 계섬월은 양소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먼저 결연을 요청한다. 이미 혼인한 처지라면 어떡하느냐는 유모의 질문에 양가의 규수인 진채봉은 첨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한다.¹²⁷⁾ 장원급제라는 사회적 성공의 결과로 정사도 집안에서 먼저 청혼을 해온다. 그렇게 결연한 정경폐가 가춘운과의 결연을 주선해준다. 적경홍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스스로 양소유를 찾아온다. 심요연과 백릉파는 양소유의 사회적 성공을 도와주고 스스로 결연까지 요청한다. 심지어 이들 두 사람의 기구한 과거는 모두 양소유와의 결연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구운몽』은 ‘각기 다른 성적 매력을 지닌 여성들과의 결연’,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결연’, ‘결연한 여성들끼리의 화목’ 등을 통해 남성들이 바라는 가장 완벽한 성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¹²⁸⁾ 이러한

125) 위의 책, 71면 “贊普大悅，遣妾使害尙書，而成功之日，封爲貴妃云矣。”

126) 인간이 지닌 사회적 동물로서의 성적 특징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월슨(이한음 옮김), 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173-207면 참조.

127) 강전섭 소장본, 18면 “不幸而娶妻，則吾不嫌其爲副。”

128) 이와 관련하여 『구운몽』에 보이는 사랑이 매우 낭만적이고 환상적이며 꿈에서나 가능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문규, 2007 「『구운몽』의 性愛

결연 방식은 앞서 살핀 영웅의 사회적 성공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타고난 능력과 적당한 노력에 주위의 도움이 보태져 만인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4. 『구운몽』의 교훈과 한계

『구운몽』은 영웅 서사의 전형적인 특징에다 세속적인 성적 욕망에 바탕을 둔 애정 서사를 결합하여 다양한 재미를 만들어낸다. 독자들은 성진과 양소유 및 여덟 여성을 통해 사회적인 성공 욕망과 개인적인 성적 욕망을 한꺼번에 대리로 충족하게 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기에 『구운몽』은 독보적인 재미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구운몽』의 재미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구운몽』은 가부장을 중심에 두는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욕망을 충실히 재현한다. 따라서 지금도 엄존하는 가부장제의 형성 과정과 정당화 논리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가 된다. 세속적인 성적 욕망을 형상화하였다라는 점에서 양성 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교육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구운몽』은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말하기 꺼려지는 내용을 우아하게 전달한다. 이는 한문 텍스트 창작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다. 『구운몽』은 용사와 한시를 통해 비유·상징·함축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외설과 음란의 경계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한다. 기존의 서사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것도 『구운몽』의 문학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운몽』은 스토리텔링과 글쓰기의 영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¹²⁹⁾

小説的 성격」『고전문학과 교육』14, 361-396면 참조.

129) 『구운몽』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주요하게 활용하면서도 이를 진실한 사랑과 결부시킨다는 점, 동침 장면을 간략하거나 우아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금병매』, 『육포단』, 『호색일대남』 등과 구분되는 면모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길수, 2006 「17세기 동아시아 소설의 편력구조 비교: 『구운몽』, 『육포단』, 『호색일대남』의 경우」 『고소설 연구』 21, 249-276면 참조.

이러한 교훈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는 『구운몽』이 채택한 영웅 서사의 이념적 위험성이다. 영웅이 등장하는 문화콘텐츠에 우리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까닭은 그런 영웅이 존재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과 자부심, 안전하다는 느낌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쾌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재미로 포장된 이러한 콘텐츠들 대부분이 민족주의·전체주의·국가주의 등을 옹호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 영웅인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본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물질적인 성공은 팬들이나 대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담은 방송과 광고를 통해 우리 전체의 성공, 즉 국가나 민족의 성과로 확대 포장된다. 이를 접하는 보통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영웅을 만들어내는 우수한(?)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서열 조직과 이념 체계에 순종할 때에만 영웅으로 인정받는다. 차범근과 박세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체재의 불합리함과 이념의 맹목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영웅은 보통사람 보다 못한 처지로 몰락하게 된다.¹³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연예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양소유는 기성의 규범과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사회적 성공을 거둔다. 양소유의 입장에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이 곧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구운몽』에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혼란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 하복 삼진과 토번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 따위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천상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설정만큼 지상계의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데 유용한 것도 없다. 양소유가 믿고 따르는 ‘충성’과 ‘대의’는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활용되는 ‘위기 극복’, ‘국민 통합’, ‘고통 분담’ 등과 그 용법이

130) 스포츠 영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신화에서 유래한 낡은 사고방식인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주의, 이기적인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등이 여전히 전재하게 작동한다. 정희준, 2001 「스포츠영웅의 조건: 그들의 등장과 몰락의 사례를 통한 이데올로기 해석」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14권 1호, 257-272면.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는 『구운몽』에 그려진 성적 욕망이 양성 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구운몽』은 남성만을 위한 소설은 아니다. 여덟 여성은 애정 결연의 과정에서 자발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며 남성을 깨우치거나 도와주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여덟 여성의 지혜와 능력은 남성의 사회적 성공을 돋는 데 유용할 뿐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에는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여덟 여성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양소유에게 의지하는 면모를 보인다. 양소유가 불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자 여덟 여성은 자신들을 먼저 구제해달라고 간청한다.¹³¹⁾ 이는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여덟 여성을 제도함으로써 현실이 된다.

이 장면은 세상을 이끄는 것은 남성이며 여성은 그 뒤를 따르는 존재라는 차별 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남성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여성이 행복해진다는 인식을 합리화한다. 나아가 여성들 스스로가 평등한 관계를 맺어 한 남성을 성실히 섬겨야 한다는 관념을 정당화하게 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능력이 모자라다는 인식은 신화에서 비롯한 것이다.¹³²⁾ 신화가 큰 영향을 미친 시대에는 하늘의 계시이자 자연의 섭리로서 불평등한 성 역할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구운몽』과 같은 대중적 문화콘텐츠는 제도와 관습을 통해 전승되는 이러한 관념을 부지불식간에 확대 재생산한다. 그 결과 여성들 스스로가 불평등한 성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부다처제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럿과 결연할 수 있는 설정

131) 강전섭 소장본, 134면 “妾等娣妹八人，當於深閨之中，焚香禮佛，以待相公之還。相公今行，當遇明師仁友而得大道。得道之後，請先濟度妾等也。”

132) 제우스의 불륜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나 이에 대한 헤라의 질투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와 상자를 연 판도라의 경우에서 보듯이 신이 내린 단순한 금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명청한 존재는 모두 여성이다. 웅녀는 삼칠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된다. 바리데기는 나무하기 삼 년, 물 긴기 삼 년, 불때기 삼 년에 일곱 아들을 낳아주고서야 부모를 되살린다. 웅녀와 바리데기가 지닌 능력이라곤 고작 엄청난 인내심뿐이다. 후사를 얻기 위해 술을 먹여 유화를 겁탈한 해모수는 천상으로 도망치고 쌍방 행위의 결과인 주몽의 양육은 오로지 유화가 떠맡는다. 이처럼 신화 속의 남녀 형상은 암암리에 불평등한 성 역할을 합리화한다.

은 불가능해졌으나 “여자란 자고로 잘난 남자에게 간택되어야 행복해진다”는 설정은 지금도 매우 흔하게 반복된다.

신화와 영웅 서사에서 비롯한 불평등한 성 역할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콘텐츠는 할리우드의 액션 영화다.¹³³⁾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여자 주인공은 악당에게 잡혀감으로써(또는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면서) 남자 주인공인 영웅을 곤란하게 만든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영웅은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주인공 때문에 불필요한 시련을 겪게 된다.

성 역할과 위계에 대한 이런 관념은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비판의 대상이 된다. 『구운몽』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재주와 현명한 지혜가 결국은 한 남성의 성공과 행복으로 귀결된다는 설정은 분명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탁월한 재미와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을 읽고 가르칠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 『구운몽』, 김만중, 재미, 교훈, 영웅 서사, 애정 서사, 욕망

투고일(2015. 11. 23), 심사시작일(2015. 11. 25), 심사완료일(2015. 12. 14)

133) 신화 속 영웅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밝힌 조셉 캠벨의 이론은 실제로 시나리오 창작에 활용된다. 캠벨의 서사 이론과 용의 심리학을 융용하여 할리우드 영화에 나타나는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한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Abstract〉

The Fun and Lesson in *Guunmong*

Gu Bon-hyeon*

Guunmong(九夢), which is a novel created by Gim Man-jung(金萬重), became the subject of controversy because of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is mixed a dream and reality. Many people regard *Guunmong* as a novel that contains instructive contents such as religious realization or ideological theory. By the way, this is the phenomenon that was shown due to the compulsion of trying to find out a lesson in classics with thinking that reading a novel is labor.

Novel is a kind of interesting thing. Thus, reading a novel corresponds to a pastime. The story and characters of *Guunmong* are addressing a problem of a desire that a human being has, thereby being filled with a lot of f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nd which fun is specifically made and to figure out a character type and a narrative structure in *Guunmong*.

The first fun in *Guunmong* originates from recycling a story structure in ‘A Hero’s Life.’ The story structure of ‘A Hero’s Life’ arising from a myth specifically shows the most perfect life that a human being can imagine. *Guunmong* well shows the biggest social success that a human being can achieve, and what a method is that is most suitable for accomplishing it. Both the dream and the reality that appear in *Guunmong* are the world of a desire. Even a scene of denying a dream after returning to reality has a meaning as saying of achieving the last desire of reality.

The second fun in *Guunmong* results from utilizing the story structure of ‘Love Relationship.’ In the process that the hero Yang So-yu(楊少遊) has relationship with eight women, a man’s sexual appetite is well revealed. Eight women are the characters who implemented diverse sexual attractions, respectively, desired by a man. A point of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ongduk Women’s University.

making an alliance in the process of social success and a point of having connection caused by a woman's positive love-making show a method of accomplishing the easiest sexual appetite that a man wants. Yang So-yu shows the snobbish image loyal to the instinctive sexual desire, but receives women's understanding and tolerance in the way that shows pure love toward counterpart. As a result, all the eight women come to hold the equal position within a family. This seems to be set-up for drawing female readers' sympathy.

Guunmong has an important value dubbed an excellent method of storytelling and a specific exploration on human nature by skillfully mixing two stories called 'A Hero's Life' and 'Love Relationship.' However, a man's sexual appetite that is shown in *Guunmong* has a problem as saying of being able to be used as a logic of justifying polygamy or patriarchy. Also,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even to which the shape of male and female characters shown in *Guunmong* may rationalize inequality of sex role or gender hierarchy that exists even now.

Key Words : *Guunmong*, Gim Man-jung, Fun, Lesson, A Hero's Life, Love Relationship, Desire